【一】 第六千三百十號 (昭和七年十一月二十日第三種郵便物認可)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昭和十三年六月四日(土曜日) (第二版) (日刊)

朝鮮日報 夕刊 三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陸相更迭發表

板垣中將陸相新任
杉山大將參議官親補

【東京電話同盟】杉山陸相은 今回 軍事參議官에 轉出되고 後任陸相은 板垣征四郞中將으로 決定되엿다

(寫眞 上 板垣陸相 下 杉山大將)

【東京電話同盟】杉山陸相은 今回 軍事參議官에 親補되고 其後任은 板垣征四郞中將으로 決定된 旨를 三日午後一時二十分 內閣으로부터 發表되엿다

【東京電話同盟】三日陸相辭任이 聽許된 杉山陸相에 對하야 新陸相親任式에 繼續하야 左와如히 親補式을 擧行하엿다

補軍事參議官 陸軍大將 從二位勳一等功五級 杉山元

首相陸相과協議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 杉山陸相은 三日午前九時五十分前後하야 首相官邸에 入하야 閣議前首相室에서 會見 當面의問題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內相經過良好

【東京電話同盟】二日夕刻築地海軍病院에 入院한 末次內相의 經過는 良好하야 三日朝는 平熱으로 도라왓다 다만 今가려서는 十日間이면 退院될것갓다 햇다고 傳하고잇다

軍費調達次 余漢謀暹羅行

【上海二日發同盟】廣東에는 軍費調達次로 余漢謀가 第四路軍軍需處長 丁緒倫을 다리고 自身暹羅에 赴하야 同地의 華僑間에 救國公債를 팔고잇다고하는데 미들만한 情報에 依하면 右兩名은 華僑慰問이라는 名目으로 暹羅에 赴하야 實際는 同地의 某方面을 使用하야 各地에 散在한 華僑間에 救國公債를 팔고 或은 脅喝的手段으로서 獻金을 求하엿스므로 同地華僑間에 人氣를 일허 公債應募數가 如意치안흠으로 余는 丁을 남긴채로 最近廣東에 歸還하엿다고 한다

時事解說 鄭州

津浦·隴海兩線을 相交하는 要衝徐州에서 大敗를 喫한 支那는 아직도 長期戰을 豪語하고 今般에는 隴海、京漢兩線의 交叉點인 鄭州防備에 奔走하야 徐州에서 敗走한 直系中央軍約十個師를 鄭州를 中心으로 配置하는 同時에 最近英國으로부터 購入한 最新式武器의 三分之一을 即時이 方面에 支給키로 決定하야 一日武漢에서 開催된 軍事最高會議에서 이를 決定하엿다한다

◇

鄭州를通過하는 京漢線은 津浦線의 西方에 並行하야 北京으로부터 漢口에至하는 一、二二三粁間의 所謂支那中原의地를縱斷하는 縱貫幹線이다 그리고鄭州로부터 漢口에至하는 沿線에는 新鄕、許昌、郾城、西平、遂平、駐馬店、確山、信陽等各都市가잇는데 鄭州는 人口約一萬餘로 支那中原의 交通의 中心點이되엇은 勿論이오 商業、經濟、政治의 要衝인 同時에 軍事上으로 極히 重要한 地點이다

◇

如斯한 重要한 地點을 蔣介石이 死守하려함은 果然 理由가잇스나 皇軍의 進擊에對해 얼마나 抵抗할는지 實로一段蔣介石이 鄭州를喪失케된다면 河南은勿論이오 西로 陝西省이危險하고 다시 陝西가 危殆케되면 同時에四川省까지도 制約을 밧게되고 南으로 河北省도 危殆케될것이니 이河北이 危殆케되는날에는 그中心地인武漢三鎭도 極히 危險한 境에 陷入할것이다 따라서 萬若鄭州가 陷入되는날에는 그戰果에잇서 徐州陷落보다도 一層支那政權에 對하야決定的損失을 與할것은明白하다

廣東은嚴重防備

軍事的目的物만에限해空爆
我當局反駁聲明

【쥬네브二日發同盟】聯盟支那常置代表胡世澤이 一日 聯盟事務總長 아브놀氏에게 日本軍의 廣東空襲은 無防備都市空爆이라는 旨의 通牒을 發한데 對하야 쥬네브의 日本當局은 廣東은 無防備都市가아니라는旨로 左와如히 反駁聲明을 發表하엿다

支那代表部는 日本의 廣東空爆은 無防備都市의 爆擊이라고 主張하고잇스나 廣東은 嚴重히防備되여잇서 無防備都市라고할수는업다 日本의 飛行機는 嚴密히 軍事的目的物만을 空爆한것으로 廣東市民이 엇은 損害는 모두 支那側高射砲의 彈丸에 依한것이다

支那의떼마宣傳

【北京二日發同盟】敗戰에敗戰을 繼續하는 支那軍은 떼마放送과 誇大宣傳을行하야 其敗戰을 掩蔽하기에 注力하는데 最近支那側이 이目的으로發行한 印刷物에 『陣中畵報』와 『血戰台兒莊』의 二冊이잇다 『陣中畵報』는 一字無識한 支那兵을爲하야 漫畵로써 巧妙히敗戰을 勝利와如히꾸미는一方 『血戰台兒莊』에는 宣傳部次長 郭沫若이가 序文을쓰는데 其內容은 支那軍의台兒莊附近勝利는 指揮와戰略의優秀와 將兵의奮戰의 賜物이오 日軍敗退의 主要한理由는 모두 老兵이엿기때문에 日軍의死傷 二十萬 當時兵力의不足을 招來하엿슬뿐아니라 出征을忌避하고 東京、大阪、神戶에서는 叛亂이일어낫다고하는 笑止千萬의 떼마宣傳으로 巧妙히 現實의敗戰을 將兵에게 숨기기에 必死의苦心을示하고잇다

忠南視察終了로 南總督歸途登程

【大田電話同盟】忠南道管內視察中이든 南總督은 三日午前九時儒城을出發 大德郡炭洞面所在의 興龍寺에參詣한後 다시附近農村을 隨時로視察하면서 大田으로가서 同地憲兵隊를 訪問한後、正午지나 大田驛着、驛階上食堂에서 晝食을마치고 午後一時十九分 大田發列車로 四日間에亘한 視察을마치고 一路歸任의途에올랏다

孫科의泣訴 부元帥馬耳東風

【某處着情報】莫斯科로부터 接手한情報에依하면國民政府代表孫科는 第二次의 蘇聯訪問을終하고 廿七日出國하엿는데 『스칸디나비아』半島와佛蘭西를經由하야 歸國할豫定이다 孫科는 莫斯科에서는 主로 蘇聯外交界及外國新聞記者等과 힘써接近하야 揚手方面으로부터도 對支援助問題의 達成에 奔走하엿스나 徐州大敗戰以來 蘇聯當局의 態度는 갑작히 冷淡하여저서 積極的援助의 期待도 希望이 薄弱하므로 이에狼狽한 孫科는 때마츰 莫斯科滯在中인 極東赤軍總帥『부류헬』元帥를 屢次訪問하야孫逸仙과『가론』時代의『부류헬』과의 舊交를 하소하고 『부류헬』의助力을 請햇스나 老狡한 『부류헬』은蔣政權의前途은보잘것이 업스므로 『共產軍問題는 여러가지 考慮할條件가잇스나蔣介石에關해서는 國民政府의北伐完成後·그가自己에게 보인背反態度를 回想하기도 不愉快하다 蔣政權에對한援助에對하야 政府에何等의建言을하는것은 생각도못할일이라』고하야 相對하지안햇다

宋門關地區猛爆

海軍荒鷲는南支空襲

【北京三日發同盟】弘中航空隊는 二日午後 開封을空襲하야 敵의猛烈한 高射銃砲火中을冒코 宋門關(開封東南)地區를 爆擊하야 大打擊을주엇다

【上海三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前十時發表=昨二日海軍航空隊는 左의 活動을하엿다

一、南雄飛行場의 攻擊에向한部隊는數十의爆彈으로 附屬建物의 大多數를 爆破한外飛行場 滑走路를 爆破하엿다

二、廣東 九龍間自動車道路及軍用自動車를 攻擊한部隊는 銃爆擊에依하야 軍用自動車二十輛을 破壞하고 道路十數個所를 爆破하엿다

前線으로 進擊하는 皇軍部隊(曹州附近에서)

米財產復歸要請에 日本側同意表示

國務省當局자못滿足

【華盛頓二日發同盟】國務省은二一日在支米國人의 財產回復에關한 對日通牒內容을 公表한바 繼續하야 二日日本政府로부터 右通牒에對하야 至極滿足한 回答을 接한旨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日本政府는 在支米國人의 財產回復에 關한 米國側의要求를 거이全部 承認하고 米國人의 日本軍占領地域內에 잇서서의 自己財產復歸하는것은 無妨하다고 同意하엿다 上海駐在米國總領事로부터의 報告에依하면 上海의 日本當局은 米國南部파프치스트敎會所屬中學校財產을 同敎會에 返還하는 同時에 米國人宣敎師十名에 對하야 南京歸還許可證을 發給하엿다 그리고 駐日그루大使는 日本政府가 近近各省代表로써 組織하는 調査委員을 現地에 派遣하고 米國人財產回復問題를處理하기로 決意한旨를 報告하여왓다 日本政府의回答은 一般에자못 好感을주는바 國務省側에서도 米國의申請에對하야 日本의回答이 外交史上 別로例가업슬만큼 迅速하다고 滿足의意를 表明하고잇다

【華盛頓二日發同盟】國務省은二日 在上海파프치스트敎會財產이 日本側으로부터 正式으로 返還되는 同時에 米國人宣敎師十名에 對하야 南京歸還許可證이 交付된旨를 發表하엿다 國務省側에서는 이것으로 充分히國務省의 威信도 서게되엿다고자못滿足의意를表하고잇다

國府漢口放棄코

昆明으로遁入準備

【香港二日發同盟】蔣介石이 徐州에서 敗北하고 只今또한 敗色이 歷然한 開封會戰을 압둔 國民政府는 周章狼狽하야 벌서부터漢口放棄準備를 進行하고잇는것이 三十一日 紐育타임즈에依하야報道되엿는데 今日當地에 到達한情報에依하면 國民政府는 手先을 長沙로 避하엿다가 다시 貴陽을 거쳐 雲南省 昆明으로 遁避할模樣인바 이때문에 昆明에는 어미 軍官學校政府員官舍等의 準備가 着着進捗되고잇다 昆明遁入한 後는 蔣介石은 이天然의 要害를 據點으로 貴陽 桂林 重慶을 國防第一線으로하고 最後의抗戰을 試하려는것으로 前記三地點과 昆明을連絡하는 自動車路와및 [illegible]自動車路는 依然國防의 大動脈으로 重視됨에이르럿다

板垣中將陸相會見

【東京電話同盟】二日에 入京한 板垣征四郞中將은 三日午前八時三十分 宿舍偕行社를나와 陸相官邸로가서 杉山陸相과會見 먼저 歸京人事를述한後 任務를 報告하고 다시當面의 重要問題에 對하야 協議를遂하고 會談約一時間만에 九時三十五分 辭去하엿다

米下院『라』議員

軍縮會議招請案提出

【華盛頓二日發同盟】先般宣戰布告國民投票案을 提唱하고 有名하게된 民主黨下院議員 루이스·라도로氏는 二日 下院에對하야 『米國政府는 今秋를期하야 世界主要國을 招請하고 海軍擴張競爭阻止次로 世界軍縮會議를開催하라』는 決議案을 提出하엿다 라도로議員은 決議案提出에 當하야 如左히말하엿다

本期議會가 米國과및世界를戰爭의 慘禍로부터 救하기爲하야 아무것도 한일이업시 休會하여 드러간것은 實로遺憾千萬으로我等은 此際어떠한 鍵策을 하여야할것이다

但이決議案도 압서宣戰布告國民投票案와가티上下兩院을 通過할 可望은업다

弘中部隊 敵大部隊粉碎

【北京三日發同盟】我荒鷲弘中部隊는 連日開封附近의 爆擊을反復하야 興隆集、陳留等의 敗敵에 大打擊을주고 二日開封城의 東南端宋門關을 爆擊하야 附近을 守備하는 敵部隊를 粉碎하엿다 空軍의 協力에 呼應하야 地上各部隊의 進擊도 三日朝來極히 活潑하야 黃河南岸隴海線北側 陳留口 三儀集 曲興集附近等 上流地點에 向하야 敵의 反擊에 殲滅的 打擊을 주고잇던 ○○部隊는 蘭封急進의 態勢를 整頓하고 또 隴海線南側地區로부터 進擊中인 ○○部隊도 目下前線據點을 攻擊하야西方으로 遁走하는敵을 追擊하며 猶擊을加하는中이다 我軍이 顯著한 戰果를 獲得할것도 目睫에 迫하여잇다

全國方面委員聯盟 廿一日新潟서開催

朝鮮關係官도出席

財團法人全日本方面委員聯盟第九回大會는新潟市主催厚生省後援下에來二十一日부터 三日間新潟市에서 開催되는데 日支事變下의 都市及農村의 軍事後援에關한事項、生業扶助에關한事項、醫療保護에關한事項、下層階級을對象으로한物價對策等 長期戰對處方面事業의 擴充을主要議題로 討議하야써 大衆의福祉增進을期할터인데 本大會에는 朝鮮으로부터 左와如히 方面事業關係官十一名이出席할터이다

平壤府內務課長小林繁 總督府職員一名

田尻政務次官入京

鐵道政務次官 田尻生五氏는 滿洲北支視察의歸途 三日午後二時十五分京城驛着入京 朝鮮호텔에 二泊한後 五日『아까쓰끼』로歸任할터이다

人事·集會

▲齋藤瀧藏氏(京城府龍山出張所長) 新任人事次本社來訪
▲武良吉市氏(京城府總務部內務課庶務係長) 同上
▲金古明成氏(京城府商工獎勵長) 同上
▲橋本正之氏(朝鮮總督府事務官) 新任人事次來社

眞野部隊激戰

熊谷部隊長名譽의負傷

【□□□□發表】眞野部隊는 數日來 曲沃附近에서 戰鬪中이며 熊谷部隊는 激戰後 一日夕에 聞喜村(央村南方約二粁)을占領하엿다 敵의損害는 多大하며 我損害는 戰死四 負傷若干이며 熊谷部隊長은頑敵에對하야 奮戰하야率先勇躍敵陣에 突入하야 名譽의負傷을하엿다

民間鳥人의榮譽 航空章授與式

【東京電話同盟】民間鳥人의榮譽 航空章授與式은 一日午前九時十分부터 遞信省大臣室에서 擧行되야 永井遞相으로부터 日本航空의 荻野、鍋井、藤野三人에 授與、神風의飯沼、塚越兩氏의것은 朝日航空部의 中野勝義氏가 또滿航의 中尾、大里石川、岡本四氏는 滿洲에잇슴으로 同社東京駐在의 永淵三郞氏가 各各代理로 맛고 永井遞相의 訓示가잇슨後 同十時式을마첫다

徐州治維會成立

【徐州三日發同盟】蔣政權의暴政으로 徐州十萬의 市民은塗炭의 苦에서 呻吟하고잇든바 皇軍이 入城以來避難民도 續續歸還하야 其數三萬을 突破함에 이르럿스므로 三日正午城內西關小學校校庭에서 徐州治安維持會發會式을 盛大히 擧行 徐州城의 復活과 再建을 圖하는同時에 國共兩黨의 打倒를目標하고新政權下에參加하기로되엿다 그리고 邦人도 徐州陷落以來二日까지에 男女合하야 三百餘名에 어느듯올러와서 事變前에 그림자도 볼수업섯든徐州에 日本街를 建設準備中이다

八面鋒

◇ 弔鐘울리는『政友』黨內에總裁爭奪戰白熱化。
◇ 中島 鳩山의 싸움 [illegible] 總裁는 어디로!
◇ [illegible]
◇ [illegible]
◇『死守』란 符籍으로는 死守를難望 問題는只在實力。
◇ 孔祥熙의 獨力抗戰豪語와 孫科의莫斯科行은好對照。
◇ 遞府通信은 長老敎系敎育總引退를再催。
◇ 처음듯는消息이 아니다 丸[illegible] 一鐵의前功이可惜。

鳩山氏公選主張에

中島派遷延畫策
政友總裁問題膠着狀態

【東京電話同盟】二日의 第三次政友會代行委員會의 結果는 鳩山氏의 斷乎한公選主張에 依하야 中島氏를推擧하야 一擧에代行委員會를 突破하려한 反鳩山派의 計畫에 齟齬가생겨 鳩山、中島兩候補의 拮抗을奉태엇서前面에 나타나게하여 三日午後三時부터거듭 第四次代行委員會를 開催할터인데 何等解決의曙光을 볼수업는 狀態에잇다 即二日의 會合에서 鳩山氏의 公選主張에對하야 中島派로부터는

一、鳩山氏가讓步하면 總裁는中島氏에게 落着될것이므로 此際同氏의 讓步를바란다 (前田氏)

一、中島氏를總裁에推擧한意向은 同氏의 立場은 鳩山、反鳩山兩派에 좌하야 반드시 나쁘지는안타 따라서 圓滿解決을보리라고 豫想한때문인바 中島氏推擧가 波瀾의 原因이된다면 다시금 圓滿解決의 方針에 對하야 協議를 進行하여도조타 (島田氏)

一、總裁問題가 아무래도 波瀾을 招來하게된다면 一切를白紙狀態로돌리고 代行委員制를存續하는것이 如何(中島氏)

等여러가지 提言이잇섯스나 鳩山氏의 公選論을 壓伏함에이르지못하고 一方鳩山氏의『代行委員會를 中止하고 黨의 執行機關의 決定으로 옴기자』는 主張도 剩余의 三代行委員으로부터 贊同을 엇지 못하엿스므로 結局中島派의 遷延方策으로 鳩山氏의 鬪志가 消耗되는날을기다려 鳩山氏를聽從케할 作戰으로 解釋된다 一方鳩山氏는 三對一의 形勢에잇스므로 公選論을貫徹하기는 날이갈수록 困難을더하게될것이라하야 三日의 第四次代行委員會가 最後關頭로 그以後는 設令代行委員會가 續行된대도 새로운內容은 期待할수업는 膠着狀態에빠저는것이나아닌가고觀測된다

오케一吹込藝術家·C·M·C·빼二總出演

오케一道大演奏會

『日程』

六月 三日 四日 五日 六日 七日 八日 九日 十日 十一日 十二日 十三日 十四日 十五日 十六日 十七日 十九日 二十日 廿一日 廿二日 廿三日 廿四日 廿五日 廿六日 廿七日 廿八日 廿九日 三十日 七月 一日 二日 三日 四日 五日 六日 七日 八日 九日 十一日 十二日 十三日 十四日 十五日 十六日 十七日 十八日 十九日 二十日 廿一日 廿二日 廿三日 廿四日 廿五日 廿六日

鎭南浦 熙川 江界 价川 安州 定州 宣川 新義州 安東縣 奉天 新京 哈爾濱 牡丹江 延吉 龍井 圖們 阿吾地 羅津 雄基 會寧 淸津 朱乙 漁大津 吉州 惠山鎭 城津 端川 利原 北靑 新浦 洪原 興南 咸興 永興 高原 元山 鐵原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京城支店

本店 東京日本勸業銀行構內

新券賣出し 銃後の護り 三回 四回 貯蓄債券 賣値 十圓 六月十日より廿五日まで 豫約只今受付中

(回別·價値表) [illegible]

▲印來月抽籤、當籤番號表一部三錢一ヶ年間卅錢

低利·簡便 證券擔保貸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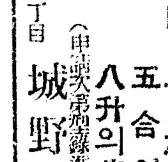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十八番地 振替京城二九七·電話本局四三五四

眼病專門內服良藥 청명관이 療法說明書呈 代進呈 進光堂本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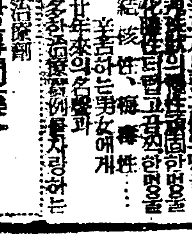
モンタナ·パナマ 精圖型編

MONTANA Genuine Panama

리-도-式



돈버는機械 五合의쌀이 八升의菓子가된다 城野製作所



연주창 新發見 연주창專門藥 一第 淸化丸 效力百中、服用容易、無痕完治 藥價 販賣所 京城藥局

當選謝禮 (가나다順)

今般濟州商工會議所議員選擧에際하야 本人等이當選의光榮을得함은오로지 有權者諸賢의深厚하신同情과德澤인줄로밋사옵고 敢히紙上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角健輔 金瀛熙 金斗壎 金東俊 高溶基 (三和商店代表)高熙錫 李學珩 朴宗實 濟州商事株式會社 韓允玉

問題의金剛山開鑿
重石等鑛權遂許可
高周波會社等의七個處에
名山에爆破聲도不遠

[illegible]

名勝區[illegible]
特殊地帶는總督府指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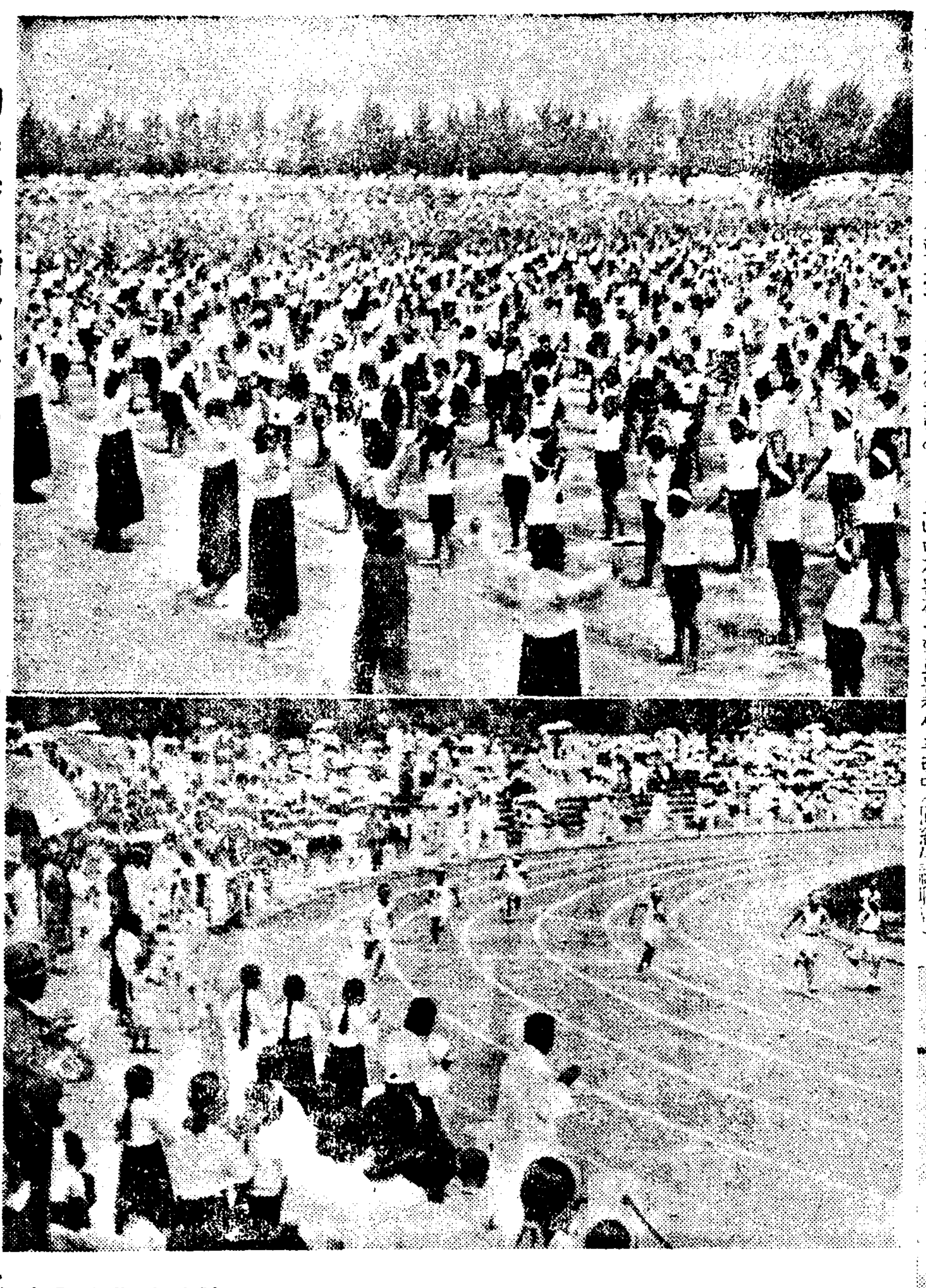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야 천하명산 금강산(金剛山)을 [illegible]

[illegible]

장로교회 [illegible] 북장로교회에서 신사참배문제로 송래경영하야오든 조선내각학교를 전부폐지하는 동시에 조선교육사업에서 손을 떼겟다는소식이 각신문에 게재된것을 보앗는데 [illegible] 도 북장로교회경영학교는 중등학교가 십오개교 초등학교가 일백육십여개교인데 정규학교는중등에 남녀각일개학교 초등에육개학교가잇슬뿐이오 그나머지는전[illegible]

高女同窓生聯盟發會式延期

시내각녀자중등학교이만명의졸업생을 망라하야 조직하려는여학교동창생총련맹(同窓生總聯盟)[illegible]



初等學院聯合大運動會畫報 ―상은 련합체조 하는 백열한경기광경

五千의學院兒勇躍
潑溂하게聯合體操
學父兄等觀覽者로場內大滿員
今日壯觀의訓練院頭

경성초등학원련합회(初等學院聯合會)주최의 제일회초등학교연합대운동회는 예정과가티 금삼일오전아홉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화려한막이열리엇다 첫여름의 맑게개인 창공아래 지튼녹음을 시처오는 훈풍은 출장한어린이들의 사기를한껏 북도다주엇다 정각아홉시를아리는 폭죽(爆竹)일성에 산듯한운동복으로 몸단속을한 열일곱초등학원의 남녀 오천학동들은 야구장에집합하야 학원기를 선두로 유창한주악에 발을마추어 보무당당하게 대회장으로 입장하니 내아들 내딸의 활약하는 그모양을보려고몰려든관중은 근만을헤이는 초성황을 이루엇다 벽두에국기게양(國旗揭揚)과함께 국가봉창이잇슨다음황국신민의서사(皇國臣民誓詞)를 제송하고동대회장 청좌가차랑(帖佐喜次郎)씨의 개회사가잇슨후 경성부윤(京城府尹)을 대리하야 삽곡(澁谷)경성부시학의 고사가잇섯스며 본사사장을 대리하야 본사주필 이훈구(李勳求)씨의 축사로서 입장식을마치고 뒤이어련합체조(聯合體操)가 시작되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률동은 보는이들로하여금감격케하엿다 이리하야순서에따라 남자오십메-돌레-스로부터 불을 [illegible]라는 접전이전개되자 [illegible] 밴드에 비인들어서가득찬 각 교응원단들의 활동성은 훈련원두를 뒤흔들엇다 도보경주에사이마다 가진재롱을 다하이문(里門)동화(東化)충신(忠信)동신(東新)동신명(東新明)동아(東亞)금성(錦城)천리(天理)배광(培光)효성(曉星)[illegible]마포(麻浦)등각학원 아동들의 유희는 만장의갈채를바덧다

→◇…사진은 지원병시험장광경

婦人[illegible]
五千餘圓詐取

[illegible] 이여자는 [illegible] 부녀자를 감언이설로 꾀이여서 부인게에 가담시켜서 오륙년동안을두고 가진수단을다하여 게원삼백여명에게서 게돈 [illegible] 편취하여먹은 근대에드물게 보지못한대사기사건이 [illegible]

여자는 오륙년전부터 전기[illegible] 에다 부인게라는것을 조직하여 가지고 시내아현정(阿峴町)공덕정(孔德町)마포(麻浦)일대를 근거지로하고 부녀자만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 한사람으로부터 백원을 내이면 일년후 [illegible] 백명에게서 [illegible] 편취해먹엇다고한다 그 [illegible] 는 아현정사는 [illegible] 동을내고 지불기한이되여 약속한 금전을 요구하엿든바 그는 차일피일 회피하여 내려옴으로 할수업시 사오명이 소관[illegible]서에 고소를 제기한것으로인하여 그죄악이 세상에탄로된것이다 [illegible] 부녀자에관한 사건이며 그피해액이 [illegible] 에달한 대사기사건이므로 신중히 취조를 진행 [illegible]

土[illegible]에火災

[illegible] 막촌 [illegible] 의 부억에서 불이낫는데 [illegible] 은 삽시간에 [illegible] 전소 일동을 반소한후 [illegible] 겨우 진화되엇는데 [illegible] 십이명은 정회(町會)의 알선으로 [illegible] 이다 [illegible] 해는 이백원 인축은 다행이무사하엿다

科料四十五圓
爲替手形脫稅로

【木浦】 목포행정모상점(幸町某商店)주인은 탈세(脫稅)의혐의로 목포세무서(木浦稅務署)에서조사를바든바 위체수형(爲替手形)[illegible]의 합계이천여원이나 고의로 인지(印紙)를 부치지안코 제삼사에게 교부한사실이 명확하므로 일건서류를 목포지청에송국하엿든바 지난삼십일에 공판이 개정되여 배건에삼원식 합계사십오원의과료를언도하엿다한다

化粧品行商女로
婦女子賣春仲介
個中엔職業女性도께잇다고
東大門署에서巢窟을襲擊檢擧

종로오정목사백육십일번지 이오봉(李五奉)(二八)이라는 여자는 오래전부터 화장품행상으로 다니면서 부인네들사이에 안면이 넓은것을기회로 행상터에서 친면을맷게된 불우한부녀며 과부들을 자기의집에 불러드려다가 여자를찾는 거리의 사내들에게 수수료를밧고서 밀매음을 중개해온중 동대문서원에게발각되여 이일새벽 밀매현장을 습격 [illegible] 바더 [illegible] 두쌍의남녀와함께 동대문서에붓잡혓나 취조에따라 판명된사실을보면 전기화장품행상에 이오봉은 일원내지 오원의수수료를밧고 자기집 온돌방세를 매음녀로 제공해왓다는데 현재판명된것만도 이집에 출입하면서 정조를팔어온여자가 효제정(孝悌町)정(鄭)(二○) 종로오정목 유(劉)(二一)송인정 최(崔)(二一)신설정(新設町)김(金)(二○)(全部假名)등수십여명이며 그중에는 모상점부 유한매담도 끼어잇다고 하며 기상점원도 이오봉이 화장품행상을 다니면서 시내 각여관을 도라다니면서 매춘행위의 주선을 하여 온것으로 판명되어 의외의 방면으로 진전되여서 그관계자가 만히 폭로될 모양이다 경찰에서는 이런소굴을 단연박멸키로하여 취조결과는 주목되고잇다

高麗[illegible]의最後[illegible]
今日•軍의採用檢査
龍山偕行社에서體格試驗後
明四日엔學術試驗

[illegible]

金容鎭畵伯 力作白扇을獻納

[illegible] 허노인이 [illegible] 울다하야 이애기의 백선(白扇)에 의작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일총독부사회교육과장을 방문하고 「제일선장병의 위문품으로써 보내달라」고 헌납을청하야왓스므로 총독부에서는 즉시헌납의 수속을 취하엿다

乞兒行勢하며 구두專門窃盜

십오륙세식된 소년들이 패를 지여가지고 다니며 걸아행세를하며 대문어구에보이는 구두등을 훔쳐내이는 [illegible] 정한주소가업서 [illegible] 다니며 유기그릇 구두 시계등을 [illegible] 되는소년이 [illegible] 전다섯시경에 종로오정목 [illegible] 서에서 잡사다가 [illegible] 거되엇는데 이소년은 원산 [illegible]

斡旋勞働者에 車賃割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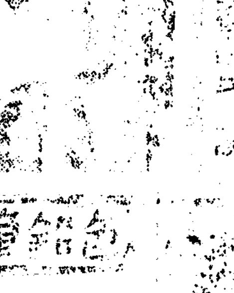
철도국에서는 삼일부터 총독부사회과의 알선로동자에 대하야 국경과 사회에알선로동자 [illegible] 할인 [illegible] 로로하엿다한다

美展入賞作品
昌德宮賞三點、總督賞六點
金基昶氏는連二次나入賞

제십칠회조선미술전람회특선이 [illegible] 피엿다 [illegible] 창덕궁에서 [illegible] 총독상 [illegible] 에서 선택한것으로 [illegible] 이세점, 총독상이 여섯점인데 [illegible] 동상중 김기창(金基昶)씨는 작년에도 창덕궁사상을 바든일이 잇섯다 [illegible]

▲[illegible] 京城 金基昶
▲[illegible] 京城 沈[illegible]
▲[illegible] 京城 大塚[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未完成을目標로한것
金[illegible]氏 談



[illegible]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三〇分 [illegible] ▲七時 講演 [illegible] ▲八時 [illegible]
第一放送 ▲午後六時 [illegible]

스포-츠
"水上스키-"
漢江서模範競技

全朝鮮高專庭球聯盟戰
明四日부터

大白封切

文化月報
▲文 [illegible] ▲一般文[illegible] ▲美術 ▲音樂 ▲演劇
詩歌
小說 美談
數字京城觀
知性의能動的意義

支社募集 各地에支社를모집합니다 뜻잇는이는規約을 請求하시면곳보내리다
定價三十二錢
發行所 京城寬勳町一四六 批判社
振京一三七八七

批判 六月號 發賣中

全三日夜뿐
林仙圭作 사랑에속고돈에울고
七時正刻開演・料金 一均五十錢
劇團青春座特別大公演

明四日夜부터
李瑞求作 어머니의[illegible]

無邊 三幕五場
合同公演今夜限
全船員總競演

明四日夜부터
李瑞求作 三幕 사나히사랑
名喜劇同時上演……必乞期待
劇團青春座大公演
東洋劇場 料金 階上五〇 六〇 階下三〇 四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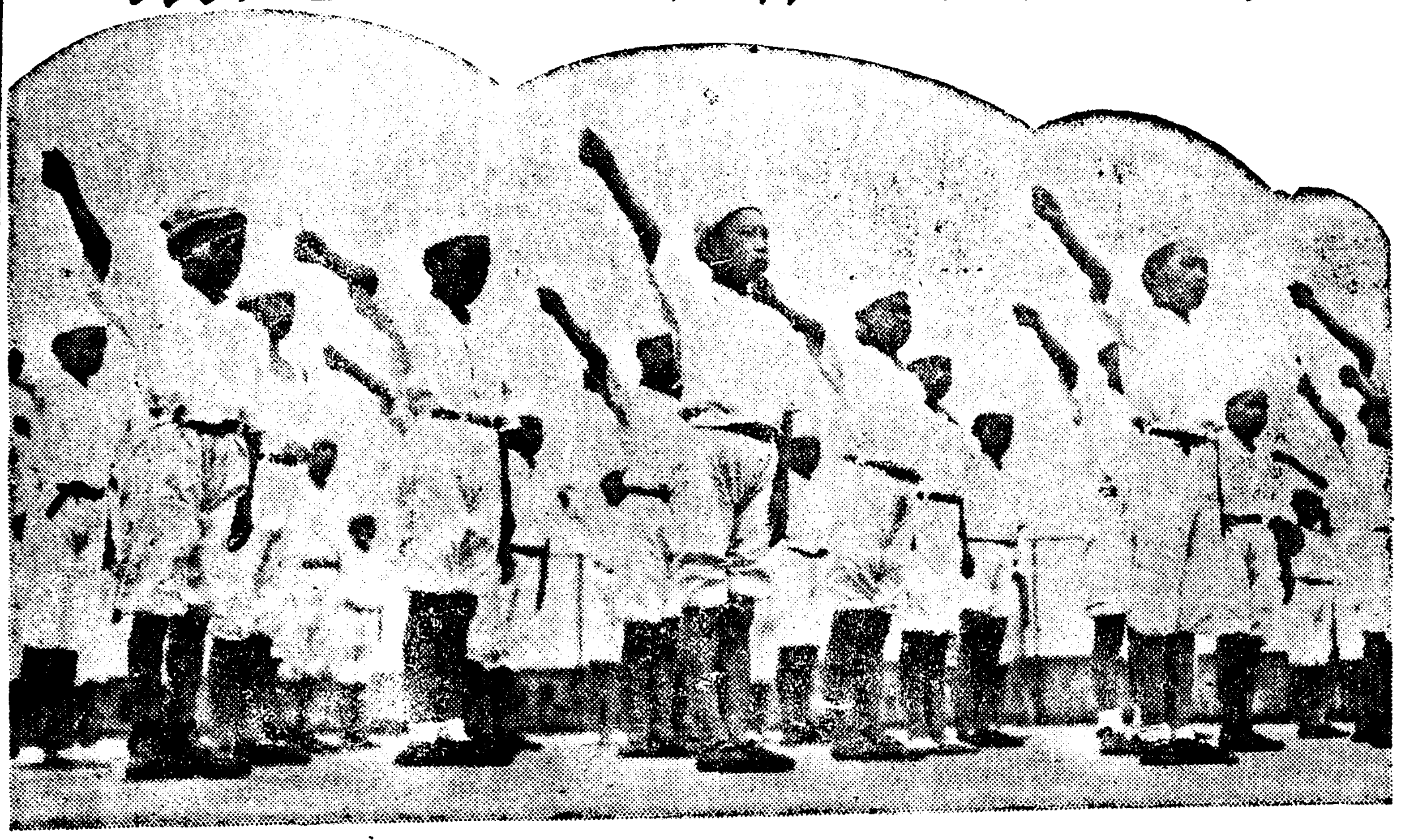
一家一冊・朝鮮[illegible]
少年 六月號 집집마다 大好評
[illegible]
定價一冊十錢 京城太平通朝鮮日報出版部發行

朝鮮齒科醫師會主催

六月四日 虫齒豫防데ー

今年虫齒豫防데ー의標語

바른齒列에빛나는健康



國民病을絶滅하라

朝鮮聯合齒科醫師會長
京城府齒科醫師會長 大澤義誠

日本은 一流文明國이라고 누구나認定하는바이지만 單只衛生施設에있어서는 아직까지도 遺憾되는點이만타고생각합니다。特히 結核病과함게 二大國民病이라할만한 虫齒豫防施設에對하야는 甚히冷淡합니다。

虫齒와같이國民間에廣汎하게蔓延된病은 없읍니다 小學校兒童들은 九〇%以上 中等學校生徒는 八〇%以上이라는 可驚할高率에 達하고있읍니다。

뿐만아니라 虫齒로서받는精神的、肉體的慘害가 想像할수없을만큼深刻함으로 우리全國同業齒科醫는 지난昭和三年以來 今六月四日을「虫齒豫防데ー」로定하고 널리全國民에게呼訴하야 그豫防과絶滅을圖謀하고있읍니다。

우리朝鮮齒科醫師會는、이壯擧에贊成하야 各學校에서도 講演、포스타宣傳等에依하야 同胞各位의虫齒豫防에對한關心을 喚起하기에 微力을다하고있읍니다。非常時下에國民體位가憂慮되는今日、아모조록이事業으로하야끔、意義있게되도록 各位의協贊을바라는바입니다。

健康은齒牙에서

醫學博士 門龜三上

現下非常時日本에 가장重要한것은 國民의健康이다。國防에、政治에、經濟에、日本을救할根基는 오로지 各個人의心身의健康에있다하여도 過言이아니다。

「健康은齒牙에서」—— 健康의基礎는 于先齒牙를強健하게하는데있다。食物消化의最前線에있어서、咀嚼의役을擔當하고있는齒牙가弱하면 胃腸이敏活한活動을못하게되며 따라서、榮養障害를이르켜 全身的影響이 甚大합니다。

그럼으로 齒牙를健全히하야 食物을 잘십어먹지안으면 안됩니다。그런데 虫齒가있어서 잘십어먹지못하는사람이 많은것은、實로寒心할일입니다。

此際에、齒牙가、낫뿐은速히治療를바며서 健康의基礎를強化할것은 勿論이어니와 다시한거름더나가서 榮養을尊重히하며、恒常 齒牙를清潔히하야、虫齒를豫防해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

朝鮮齒科醫師會의 國民保健運動에對하야 깊이敬意를表하며 그成功을비는바입니다。

就寢前에도이를닦읍시다

乳兒時代부터 齒牙를注意하라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長 醫學博士 柳樂達見

▽乳兒에게도 虫齒가 있다고하면 놀내는사람이많을줄안다。事實滿三歲以下의乳兒의입안에는 百人中十一人의比率로 虫齒가發生되여있다。그럼으로 乳齒가 나거든 그것의保護를于先생각해주십시요。確實히虫齒를豫防하는데는、食物에도大端히關係되나、朝夕으로 이를닦는習慣을어련이때부터養成하는것이가장必要합니다。

▽小學生時代는 乳齒와永久齒가交換되는時期임으로、그交換에注意하야 健康과美容에重大한關係를가진、齒列을 바르게하는데도關心을가저주십시요。그러케하기爲해서는 二個月에一回식은 齒牙의健康診斷을받는것이 좋읍니다。

또小學校一學年前後에나는六歲臼齒는、永久齒中에도、가장貴重한것이요、더구나 虫齒가되기쉬운것임으로 注意해주십시요。

▽虫齒는 三十歲頃까지가 第一많이發生한다고하나、그以後라도 清掃를께을니하면 虫齒가發生함으로、恒常注意를하지안해서는 안됩니다。要컨대一生을通하야 清掃에 注意하는同時에 合理的食物의選擇에依하야 強健한齒牙를保持할수있읍니다。口腔內의黴菌은 一瞬이라도人間의不注意를 버려두지안습니다。오날虫齒豫防데ー를機會로하야 各位의深慮를바랍니다。

虫齒豫防의原則

京城帝國大學齒科助教授 醫學博士 生田信保

一、虫齒가생기지안토록強健한齒牙를맨들것

強健한齒牙를、맨들기爲해서는、齒牙의主成分이되는 營養物을充分히攝取하지아니하면 안된다。特히齒牙는 妊娠二個月頃부터母親의胎內에서 나겨始作하는것임으로 미역 자반등과같은海藻類 蛤子석화등과같은조개類 或은野菜등과갓흔「가루숨」을含有한食物을 먹어야한다。다음에牛乳、鷄卵、獸肉魚類과와갓흔、燐을含有한것이必要하다、「비타민」C、D도또한「가루숨」과 燐과함게 구든齒牙를爲하야不可缺한것임으로、新鮮한野菜、果物類、肝油、버섯갓흔것도必要하다。

一、朝夕으로、반드시이를 닥글것

虫齒는、食物의찌써러기가、이의사이에 남엇기때문에、細菌의活動에依하야酸이되는까닭이다。이酸을豫防하는데는 細菌의絶滅과 食物의찌써리기를 除去하는수밖에없다。朝夕으로、이를닥는것은、이目的을達成하기때문이다。그럼으로 優良한齒磨와 齒刷子 치솔 를使用하야、恒常입안의清潔을嚴守해주기를바라는바이다。

一、虫齒와齒槽膿漏는初期에고칠것 一、就寢前에도、이를닥글것 一、어린이때부터 이를닥글것。

右三項目은 虫齒豫防을爲하야 가장必要한것으로 斯界의權威인 라이온齒磨本舖가 多年間唱導해온바이지만 오날「虫齒豫防데ー」를機會로 一般家庭에서實行해주시기를 바라고마지안는바입니다。

家庭

散步生理學

것지안는사람은 이처럼병이만타

혈압노픈사람은거르면나리고 수영을하면되려나려

교통이 편리해젓기때문에 요새사람들은 차차 다리를 쓰지안케되어옵니다。도회지에서는 엄퍼지면 코다을데도 뻐스、전차、택시、자가용자동차、공용자동차를 타야만백이는 버릇이부터버리고마랏습니다。

깨솔린의소비절약이며、국민보건운동의 발달을위해서라도『것자、거러라!』하는 말이 일어나게된것은 참으로 기뿐일이라고할수잇습니다。

우리몸도 쓰지안는부분에는 혈액이가지안습니다 가지안는혈액은 어디에고 괴여잇습니다。도회지에서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케되어서 내장과뇌에 울혈이되어잇습니다。

즉 수채로 빠저나갈 구정물이 그대로 괴여잇는셈입니다。뇌동맥경화(腦動脈硬化)나 심장、간장、신장동맥의 경화가튼것은 모두가 교통이발달된 근대도회생활의 산물이라고해도 조흘만처 작구느러가고잇습니다。

기립성담백뇨(起立性蛋白尿)라는것이 잇습니다 십분이고 이십분동안 고대로서서잇게되면 오좀가운데 담백질이석겨나오는체질입니다 담백질이석겨나온다는것이 납분현상인것은 말할것도업고 이기립성담백뇨에 대해서 보행담백뇨(步行性蛋白尿)라는것은 업는것을보아 것는다는것이 서잇는것보다 얼마나 유의한가를 알수잇지안습니까 즉가만히서잇스면 탈이나도 거러다니면 탈이안나니 맑음입니다 그런즉될수잇는대로 만흔사람들이 것도록 길이난다면 도회지사람의『운동부족』이 차차주러들것이고 거기에따라 교통난도 완화될줄압니다 것는다는것은 발의운동만이아니니까요。

머리끄트로부터발끗까지심지어 귀人속(內耳)까지거를때마다운동이됩니다 단장이라도 휘둘러가며 것는다면 상반신전체가 단장에 매달려 운동하는셈이됩니다。

산人보가 첫재 우리몸에 유의된다는것은 자유운동(自由運動)이라는데잇습니다。

스포-츠라는것은 대개경쟁의식 즉이겨야하겟다는욕심이 잇기때문에 결국정말체육이될수업습니다。젊은사람이라면 이러한 체육에도 견될수잇겟지만 중년이된사람이나 벌써 월급생활에몸을매고 사리가는사람에게는 경쟁의식이 붓는체육은해롭습니다。그러나산人보 도보운동가튼것은 어떤것에도매일필요가 업슴으로해서 일반적으로 유의합니다。

운동을하면 혈압(血壓)이 오른다고 누구나 생각합니다。그러치만 정말로 혈압이오르는운동은 자유운동중에 희여밧게업습니다。등에 약간땀이 배일정도로 산人보를해댓자 혈압을재어보면 오르기커녕 도리어 고혈압인사람도 내리는편이 퍽만습니다。

이백미리이상의 고혈압인사람은 요새가튼날시에 이삼십분동안 천천히산人보를해보십시요 산人보를하고나면 시원하게땀이것습니다。그리고 얼굴빗츤 붉으레해집니다。이때에 혈압을재어보면 대개는내려잇습니다。

아모리 천천히거러도 숨이차고가슴이뛰는 운동이면 몰라도 거룸수잇는범위의병자이면 이자유보행 즉슬슬 거러다니는운동을해서 혈압을내리는것이조켓습니다。

대개보면 혈압이놉다해서 혈압내릴약을먹어 위장을상하게하거나 사혈(瀉血)을시켜서 빈혈을되게하는 어리석은짓보다는 것는운동을해서 자연히혈압을 내리게할일입니다。

보통으로는 혈압의노피에따라 [?]의한도를정하는사람이만습니다만 혈압은개인개인에따라 노피의한도가달습니다。즉 일백이십미리나 일백삼십미리의혈압으로도 뇌일혈(腦溢血)이되는 사람이잇스며 이백미리의고혈압에도 예사인사람이잇습니다 평균혈압이 숙숙올라간다든가 또는현기증 답답증이일어나는경우는 따로치고 평균혈압이놉다는 그것만으로 절대안정을 직혀야한다는것은되려 해롭습니다。

평균혈압이라는것은 리론상으로제고 보통사람에게는업습니다 따라서 가튼사람으로도 일년동안에 오십、륙십의고저가잇습니다 노픈때는 위험하다고 간단히말해버릴수업습니다 말하자면고혈압의 사람일지라도 먼저말한 불쾌한증상이업는이상에는 절대안정보다 도보운동이조습니다 혈압에 마음이씌이는 일반도회사람들은될수잇는대로 거르십시요。

우리차지

하러버지 이

『하라버지 이가 정말 하나도 업스서요』

『그래』

『그럼 물렁물렁 한것 박게 못 잡수 시겟군요』

『그러타』

『참 안됏습니다。잠간 다녀올테니 이사과좀 마텻다 주세요』

([?]사람 최서방)

분세수는못할망정 다듬끼는해야돼요

남의눈에처들도록 남자도단장좀합시요

『사내녀석이 모양은보아서 뭘해!』

아주 으젓하게 이런말을하는사람이 잇습니다 그러치만남 자도 역시매일화장을 해야 합니다 물론아가씨와 귀부인네 처럼이야하지안켓지만 어쨋던 화장이라고이름지울수잇는 치장을하는것이니까

『나는 절대로 화장은안하네』

이러케버티는남자가 잇다면 이런사람의 이름은 현대문명국신사명부록에서 숙제버려야할권니다。

화장이란 아양을떨고 교태를부리고 하기위해서 치장하는의미의것이 아니라 건강과 청결을 표시하는사회인의 예절에속하는한가지일 것입니다。

머리

신사는 몬저 머리털에 대해서항상손질을 게을리해서는안됩니다。

한달에 몃번식 이발소에가는것도 필요하지만 매일머리에 버릇이 숙지못하도록 머리를 감고 빗질을 하고 머리기름을 바르고해서 머리카락하나 따로 떨어저잇지안케 반드럽히해야 합니다。

머리를 감을때에는 [?]나 비누를 더운물에 타서 그것으로 때를 빼것이며、나종에는 깨긋한물에『레몬즙』이나 먼는초를 한수까락쯤타서 이것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털이 빳빳해지지안코 윤이납니다。

그다음에는 머리빗는비인데 에포나이트로 맨든것은 보통하게 빗는머리에 조코 우각(牛角)뿔로 맨든것은 착 부처잇는머리에 조코 빳빳한 머리거나 연한머리에는 어느편에고 다조흔빗은 대모로 맨든것입니다。

『헤어토닉』은 매일뿌리는것이 비듬을막고 머리에 영양도 됩니다。

포-마드、즉 머리기름은 광물성과 식물성 두가지가 잇는데 외국에서온것 조흔것은 거지반다 광물성입니다。광물성의것은 냄새가 조코 윤도 기름끼잇게 들빼둘하지 안허서 조습니다 다만 머리털을 위해서는 식물성의것이 조습니다。

또 머리에 뿌리는 향수에는『오데코론』가튼것이 시원하고 머리에대해서 자극도 덜해서 조습니다。너무 강한향수를 매일 머리에 뿌리면 머리털의 질이 약한사람은 쉬 대머리가됩니다。

얼굴

남자의피부는 여자의것보다 지방 분필이 잘되니까매일 조흔 비누로 세수를 아니하면 별안간 검어지는수가 잇습니다。

그리고 일파의 하나처럼 수염은 반드시 깍그십시요 수염을 보기조케 기르는것은 별문제지만 그러치안코 깍근수염이라 터부룩하게자란것은 궁상스럽게 보일뿐더러 숙녀제씨가 결코 환영하는배아니올시다。

수염을 깍근뒤에는 반드시크림이나 화장수로 수염터를 보호해야합니다 외기와 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는『배니싱크림』이 적당합니다。

그외에 아침저녁으로 이 닥그시는것은 잇저마십시요 누-런이빠리에다가 구취가 나면 아무리 반반한신사라도 갑시뚝떨러지고맙니다。

손

머리털과 얼굴을 번적번적하게 꾸며노핫더래도 손끄테담배人진이끼어 누러타던지 손톱이 닭의 발톱처럼자라도 록내버려 두어서는 모양사납습니다 그럼으로 손은 항상깨끗이 가지십시요。손! 손이얼마나 소중히쓰이는것입니까 손가락에 물든담배진은레몬을 쓰러가지고 문지르면 대개는빠지고맙니다。

그만치하고……이외에 젊은청년신사들을위해서 요즈음특별한화장품이 나도라다닙니다 다만 분들바른다던지 붉따구니에 혈색을보이기위해서 연지를칠하고 심하면 입술에까지빨갱이칠을 하는것은 좀 문제입니다。남이 [?]병자로보면 탈이니까 이엣던 남자의얼굴치장은 정결하게해서 끼끗하게보이는것을『모토』로 삼으실것입니다。

잠은어째오며 꿈은어째꾸나

속시원하게아는사람은아직업다

그러나자미잇는이연구

옛날지나에서는 죄인을 잠못자게하는 형벌이 잇섯답니다。형벌중에 이것처럼 괴로운것은 업고 대개 닷새이상못넘기고 죽드랍니다。

요즈음『잠』에관한 동물시험이 유행되고잇는데개를 봉속에 잡아너코 거든로 그봉을 동동 두드림니다。이러케 줄곳계속하면 개는 잠을못자서 나흘만이면 죽는다합니다。

사람이먹지를안코 몃수일동안 견디는데 비해서 잠에못견디는것을보면 잠의욕구가 식욕보다 얼마나 뿌리기픈가를 알수잇지안습니까。

그건 그러타하고 사람은 엇재잠을자느냐하면 하루종일 일해서 피곤하기때문에 잠자는것이라고 간단히 대답해서는안됩니다。피곤한것만이 잠을오게하는 원인이라고 단정할수업습니다 갓난애기는 무엇이 그리피곤하겟습니까 그러컨만 젓먹는외에는 늘 자고잇습니다。이것은 자라기(生育)위한 잠이며 큰병을알코 난사람이그몸을회복하기위해서 잠잡니다。

◇

보통건강한사람이 밤열두시부터자기시작해서 아침여섯시에깬다고합시다 이사람의 잠자는상태를조사해보면 대체로 한시나 세시까지 잠이깁고 그후에별안간기피드러 네시경이되면 다야저집니다 오전네시경에 야저진꿈은 그대로그푼수대로 계속하다가 눈뜨기전에 또잠깐 깜박깁히드럿다가 다시야저지며 잠이깨이는것입니다 즉사람에게 시간동안의 깁흔잠이 필요합니다。

◇

나폴레온은 하로세시간밧게잠자지안햇다고하지만 아마이러케 기피드는잠을 세시간잣슬것입니다 그러치안코서는 견디어낼수업스니까요。

◇

잠을 생리학상으로보아 현저한 증상을든다면 대뇌피(大腦皮)의 빈혈입니다 근육의활동은 쇠미해지고 감각는것은 아수느리게되고 또긴게되며 맥은점점 느리고 약해지며 동맥의 압력(壓力)이 약해집니다 이처럼우리는 엇재서 잠을자게되느냐? 간단히 이이치를설명한다면 심신의 피로가원인이라고 하겟스나 모두가 심신의피로때문이라고단언할수업는것이잇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다음과가튼 방법으로 설명하라고들합니다。

一、순환계통(循環系統)의방면으로부터 설명하라는사람들은— 잠은 정맥(靜脈)이 충혈되기때문에 대뇌가 빈혈되는결과이다 또는 이와정반대로빈혈이되기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합니다。

二、화학적으로 설명하라고하는사람들은 탄산까스의 포화(飽和)때문이라고하며 또는 어떤독소에(毒素)로 [?]가튼것이 몸안에생기는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三、신경의분리(分離)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잇습니다。

이러케말이 다다른데 엇재꺼나 어느편의 말이올흔지 아직알수업습니다。

◇

꿈은 왜잇까?

꿈은 잠자는중에 엇던부분에가서 일어나게되느냐하면 잠이 여틀때에오는것입니다。그럼으로 막눈부친뒤거나 깨기전에 꿈이 잘꾸는데 이꿈의원인을생리학상으로본다면——

꿈은 어떤 기관(器官)의자극으로해서 생기는수가만코 대뇌가운대에 그원인을 일으키기는 오히려드물다고봅니다。우리들이 침실안을 어둡게한다거나 그외에 인공적으로 잠을방해하는것을 업새다거나할수잇습니다。그러나 그러케한다치라도 희미한 망상(妄想)으로드러오는 극히 세미(細微)의소리、심장고동소리를 전혀안들리게할수는업습니다 피부와 그외에끼치는 자극을업새기는 더욱곤난합니다。이러한자극은 모두 뇌에미칩니다。그럼으로 이와가티해서 꿈이라는것은 어떠한감각적자극에서 생기는수가만습니다 그러나 모든꿈이 다감각적자극에서생기는것은아니다。뇌중추의활동에 따라일어나기도합니다。

과학이진보되어 심리의연구가 왕성한지금에도 참말 이상한꿈이만코 암시적인꿈이만하서 간밤꿈을 이즈랴 이즐수업시마음에걸리는것이 대부분 이모양입니다。꿈이신비적이며 그내용은 신불(神佛)의계시라고 생각된예전에는 이꿈이 식히는대로일해간사람이 만습니다。

『아레산다-』대제의군사들에게는 늘해몽하는 사람이부터 잇서 그입금님은 꿈을따라 큰군사를 움지깃습니다。

◇

대만(臺灣)의생번(生蕃)은싸움싸우러나가 목을비어오는것을출초(出草)라고합니다 생번사람이 출초하기전에 성공할찌 못할찌 꿈으로 점치는습관이 잇습니다 자기네들의꿈 주장(首長)의 꿈을모아서 그길흉을 점치게되는데 꿈중에서도 추장의꿈을제일로칩니다。

조흔꿈을꾸면 적의부락을 침입합니다 거기에서 하로밤새면서 그꿈을또판단합니다 이러케 꿈이 작구작구조와야 적을너머트리고 굵은목을빕니다 생번들의심리에는 잘못되면 제목이다타나기때문에 결정권을 신의계시인꿈에매끼고맙니다

이러한종류의꿈은 서양에서도잇습니다 먼저도말햇거니와『아렉산다-』대제는 해몽하는 사람을 진중에두어 대군을움지기게햇습니다 이러한꿈해몽은 서양만이겟습니까 조선에도 얼마든지 잇지안허요?

◇

『프로이드』란사람은 그가연구한꿈의상징(象徵)이라는 조목가운데서 실례를드러 상징과꿈의관계를설명햇습니다。

꿈가운데에 집이나타나면 이것은 사람의육체전체인데 이사실은 전형적인상징으로 규측적인것이라고 주장하고잇습니다。아이들이보는 꿈에는 임금이아버지를 상징하고 여왕님은 어머니를 상징하게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꿈에나타날때는 가엽슬만큼 좌꼬만한동물이나 벌러지처럼보인다고 주장햇습니다。

『프로이드』는 또성적(性的)인 상징을 설명햇습니다。

남성(男性)을상징하는 숫자는『3』이라고합니다。단장、칼、창、긴칼、피스톨들은 모두남성의 상징이며 게집애가꿈에 피스톨가진사람에게 쫏겨다녓다면 그꿈은 성적공포에서 온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로이드』일파의 상징설은너무방대무변해서 그전부에 대해서 그대로 찬성할수업스나 꿈을 해석하는데 매우 유력한것이라고 인정하는모양입니다。

여성의상징으로는누궤、오목드러간자리、굴人속、궤짝、호주머니、배(船)가튼것이라 합니다。또사파니 복숭아니하는과실도여성의 상징이라고합니다。

꿈에서는 사람아닌짐생、회초까지도 말을합니다。꿈에서는 생물 비생물을 논할것업시 각기인격(人格)이 부여되어잇습니다。말하자면 별주부 타령을 보드시 모두가 사람의생각을가지고말을하고행동하는것입니다 꿈에만일 다른알수업는 사람이나타난다면 그것은 모두자기라고 생각해야 한답니다。꿈에 [?] 알수업는사람이 활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마음가운데에 그가튼의긔가 잇는것으로 아니하야 안된다는것입니다。

예방하기어려운 무좀

덧나기전에 처치해야해

여름이되여오면 무좀(水虫)때문에 욕보는분이 적지안습니다 이무좀은 의학술어로 한포상백선(汗疱狀白癬)이라고해서 일종파가티 백선균(白癬菌)이 피부에 부터 이러나는병인데 보통습진과는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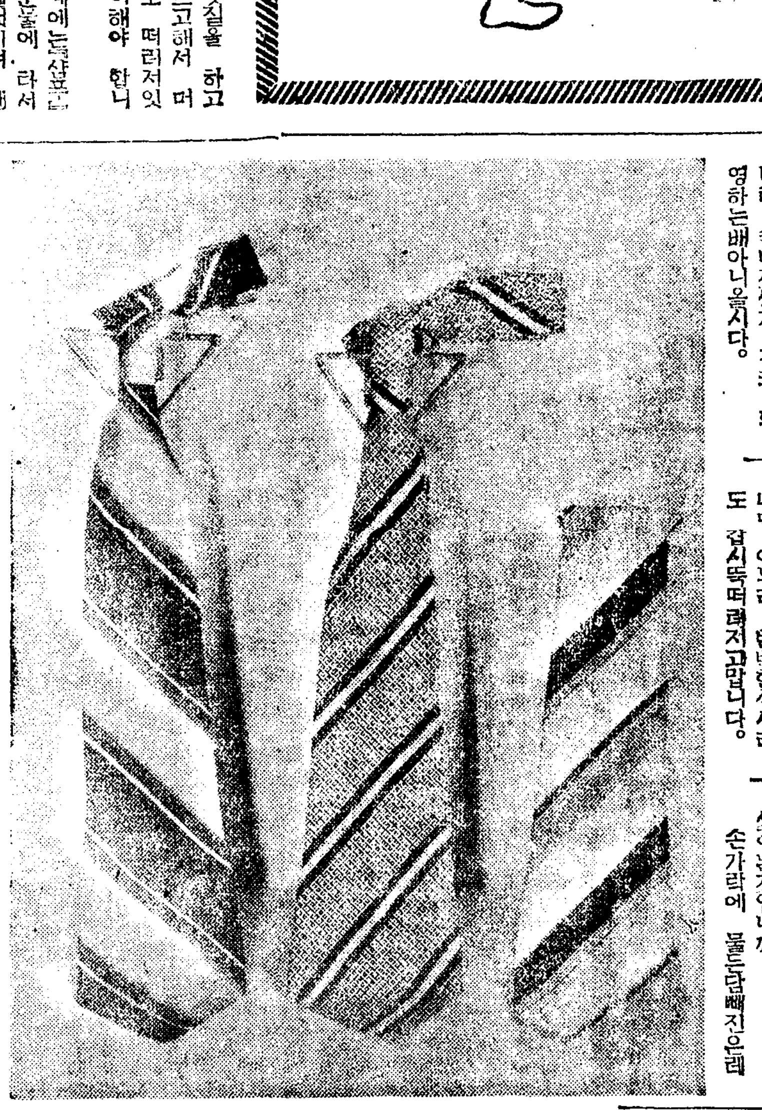
장마철이되면 의복에 곰팡이가 피는거와 가튼 이치로 무좀의균도 적당한 온도와습도(濕度)가 잇스면 잘자라퍼지게됩니다。그이 자라나기에 며 게제가 조케되며 더구나 구두신은발에는더욱 알맛는조건이 조와집니다。

◇

그럼 어떠케하면 예방이 될까? 매우 어렵습니다。왜그러냐하면 주위에 무좀걸린 사람이 잇스면 늘 접촉하게되므로 조금만 어떠케해서 신발가튼것을 박구어 신기만해도 곳전염이되고맙니다。그런즉 늘 양말을빨고 발은자조 깨끄시씻고 말리며 땀만히 나는사람은 땀띄에 쓰는 가루분가튼것을발새에 뿌리는것이 조습니다 어쨋건 무좀의예방은 그원인을 아라 늘주의하는데잇습니다。

×

불행히 무좀에 걸녓을때는 그자리가 커지기전에『옥도정기』나『마-큐라크롬』을발르는것이조코 그래도 잘안낫거든 곳 의사의치료를 밧는게조흐며 워낙 무좀에대한 약이만흐나 그사람의피부에따라서 적당부적당한것이잇슨즉 함부로 아무약이나 써서 덧나지안케함이 조습니다。



신사의넥타이

반드레한은빗바탕에 곤색 줄진것이 류행

양말은털로짠것이조타

올여름신사넥타이의 빗츤 은빗과 곤색계통이 주류가되어잇습니다 바탕빗츤 엷고 회한데 여기에 줄진것이라든지 그외의 문의는진한데 전체로보아 명랑한색조(色調)입니다 다가튼 곤색이라하드래도 작년에 비하면 무척밝은빗치되어잇습니다。

감은 여전히 줄진것들인데 거기에『스포-츠』쪼(調)로된것이라든지 꼽게짜코도 문의는 단순하게된것이 환영밧습니다 감은 모번단처럼 반드레한것이 전성입니다다만 한여름에는 베바탕에 푸리트한것이 인끼를 어덧습니다。

『뽀-라이』는 일반적이아닙니다 그러나 간단해서한여름에는 제일선선하게 보입니다。이것역시 단조하면서 산뜻한것으로 되어잇습니다。

그다음에는 양말입니다。여름에는 엷은털양말이 단연우세입니다。[?]털의부드러운 감촉도감촉이려니와 축축한발에 들러붓지안어서시원하고도실용적입니다。

빗츤엷은 회색을 중심으로 곤색、연한록색、또는여러비치섯긴『믹스추어안』이라불리며 바탕판문이 가장환영됩니다。

사진은 넥타이 오른쪽으로부터 희한노랑바탕에 검은줄이진것 회색바탕에진한곤색줄이진것 회색바탕에진한곤색과 흰줄이진 것입니다。갑슨이원삼십전으로부터이원륙십전성도。

第20回 學生美術展覽會

會期 十月中 場所 本社大講堂

出品種別

◇中等部 —師範部·中等部—
東洋畵科
西洋畵科 —圖案을包含함—
工藝科 A、彫塑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畵科
手工科

褒賞

【中等部】 特選 各科若干人各 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 優選 各科若干人各 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 各科若干人各 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 優選 各科若干人各 正賞 賞狀 副賞 十圓

◇特別褒賞 本社社長賞 一人百圓 (特選作品中에서一點을選하야 特選賞과兼하야授與함)

◇申請及搬入=申請과搬入은 同時에하되 『京城府太平通朝鮮日報社事業部』로 期日은 九月二十七日까지

◇出品規定=本社所定의 申請書에 各項을明細記入하고 作品 背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 作者氏名 住所와 所屬學校學年別及年齡을 明記하야 搬入함 (詳細規定은 葉書로 問議할일)

主催 朝鮮日報社

長篇小說

愚氓

朴泰遠 作 洪祐伯 畵 【38】

白主事의집 (四)

옥화는、대체 세상에 이러한 일도 잇슬수 잇나?——하고、제굴에 입을 따악 버린채 얼마동안 어리둥절 하야 가지고 그곳에가 멍거니 서잇섯다。

(그이다。틀림 업시 해주서부터 한차깐에서 타고오던 그 학생이다……)

영감의 뒤를 따라 사랑대문으로 들어가는 학수의 얼굴을 엿본순간 옥화는 이것이 꿈이나 아닌가 할만치 너무나 뜻박겟일에 놀랏다。

영감이 거번에 개성[?] 말을 끄내여 노흔 통에 자기 가슴속에 그 학생에 대한 생각이 새삼스러이 간절하여 진것이지만 그이와 이러케 쉽사리 맛나게 되리라고는 파시 뜻밧기다 더구나 그이가 영감과 서로 아는 사이여서 이러케 내집에 손님으로 오다니? 참말옥화는 이 기쁨을 어떠케표현하여야 조흘지를 몰랏다。

그래도 그는 조금 잇다 영감이 안으로 들어 왓슬때 그리한 내색은 보이는법업시

『그、어데서 온 손님이요?』

하고 물엇다。

『응 저ー 서울서……』

영감의 대답은 다른때나 한가지로 간단하엿스나 이번에는 그래도

『내가 전자에 은혜를 만히입은 어른의 자제야』

그리케 한마디 주를 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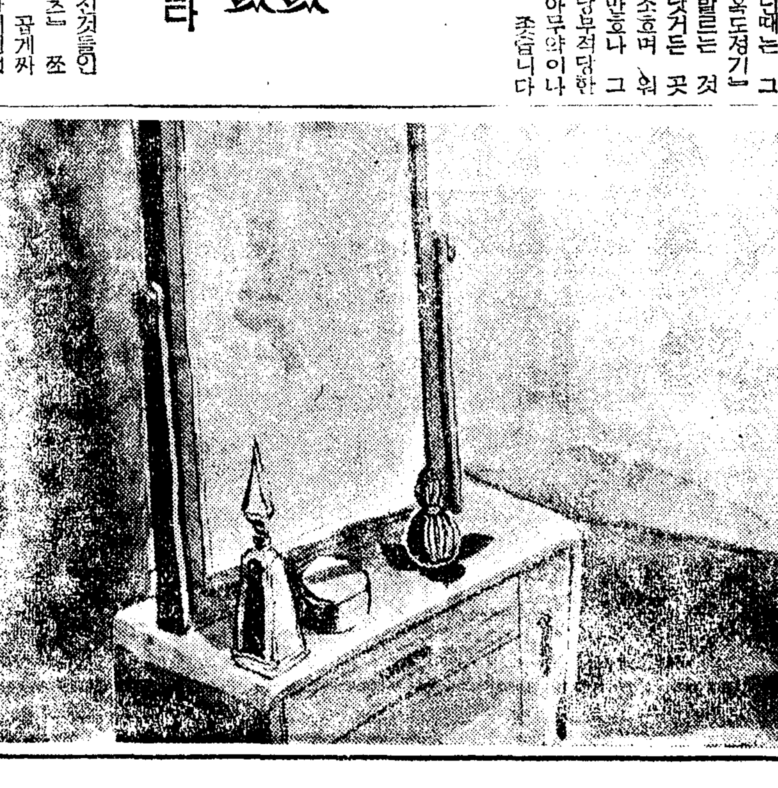
『상은 다 봐놧는데……』

『그럼 어서 내오지안쿠』

『약주가 덜 더웟쇠다』

『약주? 글세——술을 자시던가 모른겟네 그래 만히는말고 조그마치 따근하게 데내오지』

영감이 다시 사랑으로 나가자 옥화는 뚝로 아프로 가며 할멈 못보게 혀를 놀름 내여노핫다。전자에 은혜를 만히입은 어른의 자제라니 그럼 그때 차속에서는 어쩌 몰라보앗섯노? 그때는 몰랏서도 그뒤로 알어 보니까、그러러는일도 잇기야 잇다。허지가 [illegible]



그러나 사실 옥화로서는 지금 그까짓것이 문제 될터 업다。그이가 대체 무슨일로 이곳엘 나려온것인지는 모르겟스되 묵어 간대야 하로 이틀일께요 혹 어찌면 점심 한끼나 내게서 먹고는 저녁차로라도 훌쩍떠나버릴지 알수 업는 일이다。그런다면 인젠 참말언제 다시 얼굴이나마 보게 될지 모르는 일이아니겟느냐?

첫재、여러날 묵어갈 손님일것가트면 강짜가 심한 영감성이가 행여나 집으로 청해드릴까닭이 [?] 단 한두번이고 학생에게 아른체를 하여보아야만 하겟다고 상은 보다 말고 다시 방으로 뛰여 들어가 경대 아페가 안저본다。사랑에 손님이 잇다고 자기가 가서 접대하는것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오늘은 아침을 치르고나서 쪽을 두번씩이나 고처 쪽지어 가며 특히 단장에 마음을 썻더니라 흐트러진한 두가닥 머리카락 말고는 고흔 얼굴에 손대일 곳이란 업다 그는 거울속에 숫색씨와 가티 홍조를 띄운 양볼을 보고 스스로 겨면쩍게 웃음을 지여보앗스나 잠깐 그리케 경대아페가 쭈그리고 안기만 하여도된 흥경겨서 거북한 만삭이 가까운 배를 생각하엿슬때 제품에 기운이 줄엇다。

(대체 이배를 하여가지고 그이 아펠 부끄러워 어떠케나가나?……)

그러나할멈이 대청아프로와서

『술이 더웟나 본데 그만상내가리까야?』

하엿슬때 그는 허둥지둥 마당으로 나려 와서

『어서 상부터 내가우』

먼저 보내노코 또 잠깐 망살거리다가 강짜 심한 영감안팔거나 나종에 야단이야 맛나거나 술주전자는 제가 들고서 옥화는 뒤따라 나갓다。

할멈이 상을 들여 놋느라고 영창을 활짝 열어제친 방안에 가[illegible] 단정히 안저 잇는 [illegible]에게는 바[illegible]웟다。

學藝

知識階級論 (二)
現世에對한理解와愛着 휴마니즘問題의行方
白鐵

그런모든知識人의 先導的現實에 參照하야 今日은 調和와價値를 槪想하는것이 우리知識人의 唯一한 肯定的인 精神이요 積極的인

一思一 想이라고하면 그思想을 具體的으로 살려갈곳이 어딘가생각할때에 亦是 우리들은 그理想을 갓고 우리 自身의 生活우에 도라오는수밧게업다 어때에잇서 우리生活은 그理想과 現實의 中間에 秉在된媒介的인것이다. 그것은 理想을 위하야現實을 否定하되 否定그것에 肯定的側面을 두므로써 理想과 通하고 現實에對하야 對質的으로 理想을設定하되 決코 現實을 버리지안는態度다! 그리고 이生活의 意味를代表하고 그兩者의矛盾과 距離를 伸縮性잇게 재여갈 尺度될것이 무엇인가할때에 여기서 나는괴테」의 命題를 바꿔서 휴맨이티ㅡ가 그尺度임을 指摘한다.

웨그러냐 하면 近年 우리知識人이 精神 이缺如된 事實과主觀的인 行爲의 世紀에 對하야 抗議한것은 휴맨이티ㅡ를 救하는 運動이엇는데 그휴맨이티ㅡ를 救하는길이 必定的으로 調和를救하는 理想에 通해기때문이다 그

一意一 味에서 今日의휴마니즘은 처음부터調和와 均衡을期約하는 運動이엇든것이다 前項에서말한 知와肉體가背離된現象에對하야 兩全한 均衡의휴맨이티를追求하는 運動이엇다.

이와가티 휴마니즘을 調和的인것으로 보는것은 휴마니즘을 技術的인것에 致重하는것가터서 그技術이 瞬間에保持될지 모르나 오늘의 決코 時代의 發展이潮流에서 潮流에 發展할時節이아니다 그潮流가 그것이 具體化되는意味로서 技術化되고 洗練된뒤에 어떤透明的인것을 거더내서 압을 點占하는것이 今日의모든문제가 理想되어갈方面이다.

그러고 本來 物件의 被據은 그런技術的인 過程을 밟는것이 自然的인것이기도하다

그러나 휴마니즘이 技術的으로 調和를 求하는것도 휴마니즘이 이러한 具體化되는데는 그調和的인것에 不適하는것이요 그것이 歷史의 創作物로 具體化되는데는 一個의 素材的인것 實機를 기다려야한다. 이때에 잇서 휴마니즘의 調和가 實際로 나타나는곳은 現代人의形成

一現一 代人에대하야 調和의인人間을 形成하는 곳에 잇는것이다. 調和된 휴맨이티ㅡ를 求하는것은 現代의 不均衡의 人間을 改造하야 新人間을 形成하는 過程에서만實現될수 잇기때문이다.

그러면 이때에잇서 人間의形成問題는 人間의生成에 對한 後天的인 努力으로써 人間의敎育問題이니와 그意味에서 現代人을敎育하는 理想은 하나의調和的인努力의 表示가 아닐수업다 유독히 現代에限해서아니라 本來 敎育의것은 元則的으로 偏重에 對하야 調和를 求하는것이 그 本義라할것이다 웨그러냐하면 人間은 天賦的으로 타고난 資質로서 두가지의 型이 賦與되여잇는데 하나는 自然的으로 너무 知的인것이 過剩하면 또하나는 그와反對로 너무 情熱에 偏重하는데다 이때에잇서 後天的으로 人間을 敎育 形成하는 問題는 그두가지人間타입에 對하야 知性的인性格은 情熱的인 熱情을通해서 鍛錬시키고 그와反對로 너무 情熱的인 人間은 知的인冷却을通하야 그熱을 洗鍊시켜가는것이다. 人間敎育의 問題의 元則은結局 그두가지中의하나에 落着된다. 그意味에서 敎育의

一精一 神은 結局 均衡과調和를 人間우에 實現해가는 努力이 아닐까? 이런問題와 關聯해서 幕때에 年前에열린 知的協力國際協會에서 現代人의 形成問題에 全會議的인 테ㅡ마를 든것과 그테ㅡ마의 具體的인 論議를 휴마니즘의論議에두고 다시 그휴마니즘의 內容을 하나의均衡과 調和의 精神으로 究明하엿다는것은 實로 意味잇는 일이라 할것이다.

그런實例들을 通한後에 나는 決定的으로 今日의 휴마니즘을 하나의 調和를 求하는 代表的精神이라는것 그리고 今日휴마니즘의 最近의行方을 實地로 自己를救한데 지저한다. 그것은 휴마니즘의 一般論理이아니라 今日의 우리知識人의 窮狀을

一救一 濟的인 意味를가진것이라는데도 實際的인救人을압다. 우리知識人은 두가지方向에서 지금은 偏重하기쉽은 現實에서잇고 또偏重하면서잇다. 하나는現世强要하는 例의 主觀的인 地方의 情熱에對해서 一身을 그動向에放任하는태도가하나 또는 그리케 그러며 몸이마쳐지지안케때문에 現實一切을 버리는것 이두가지는 모두가 中心을 일흔 一端에 過히 偏重되는 實例가 아닐수업다. 휴마니즘의 均衡思想은 여기서 恒常 토마스만의 尺度를 가지고 自己의中心을 支撑해나가는태도다.

古典復興의理論과實際

轉換期에서 古典이 돌려다 보인다는것은 嚴肅한 歷史의 證言이다. 비록 現代의 頂點이 어느 轉換期에 다달엇나 아닌가하는것은 꾀뚜리 말하기 어렵다고하드래도 現代人의 모든 誠意와 情熱이 古典을向해 澎湃하고 傾注하는것만은 속일수업는 事實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가 겪거온바에依하면 어떠한 文化的 傾向性이 나타날때 항상 느껴지는것은 다음과가튼 두가지 危懼와 不安이다.

그 하나이 아모런 實際的 勢力도업시 입으로만 떠드는 空疎한 理論에의 墮落이라면 다른하나는 아모런 方向이나 標識가 업시 盲目的으로만 追隨하는 精力의 浪費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 古典復興熱이란 巨大한 現代的 事實을 붓드러 한편으로 그 理論的方向을 指示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實際的經驗을 收錄하여 이澎湃한 現代的熱誠과 情熱로하여금 眞正한 二十世紀의 르네상스를 成就케하지아니 하면안될것이다.

이에 評論家들의 古典復興에關한 理論과 古典硏究家들의 貴重한 經驗을 交換해 실어 한개의 時代的標識가되기를 期하는바이다。(一記者)——거울은 樂浪時代의 白銅製四方神人畵像鏡——

古典復興의現代的意義
深奧한叡知의攝取過程
朴英熙

數年前부터 사람들은 古典에 關해서 큰 關心을 가지고 或은 그復興을主張하며 或은그遺産의正當한 繼承을 絶叫하엿다 그것이 事實上今日에 이르러서는 各方面에 古典硏究의氣色이 漲溢하여저잇는것을 볼수잇는것이다.

現代에 잇서서 古典復興의意義는 무엇인가? 이 問題는

一般 文化人들의 再考할 重要性을 가지고잇는것이다.

더욱이 朝鮮에 잇서서 諸般文化를 構築하고 잇는『제너레숀』에게 이問題의 重要性을提出하지 아니치못하게되엿다.

널리말하면 學問이라는것은반드시 系統과體系를 必要로 하는것이다. 悠久한 歲月이 흐르는동안에 그形態가 相異하며그 體系에 異變을 이르킨다하드래도 結局은 어떠한 한個의體系와 學說에歸納되는것을 硏究할수잇다. 그多少의異變은 擴大며補充이며 發達의 結果뿐이다。가령 哲學上으로 우리가 생각해본다면『칸트』나『헤겔』이나『포엘빠하』니等 偉大한 哲學者의 思想이結局은 數千年前으로 올라가서 希臘의古都를 차저『라레스』니『히포크리테스』니하는 哲人들의思想에 歸結할수잇는것이다 宇宙는 물로서形成되엿느니 或은 불로서 되엿느니 하는物質論과『事物은變遷한다』는 이두가지의 內容과方法의 無限한發展과 補充과 擴大가『칸트』의哲學이나『헤겔』의哲學속에서 쉽숩게 차저낼수잇는것이다.

이와가티 學問이라는것은

無限 한 連續와 發展에서 體系를 形成하여서가며 또 이體系가 擴大되는것이다.

만일 이러한것으로서 眞理를是認하게된다면 現代는 古典의延長이며 그一部分이다. 即現代의 學問은 古典업시 形成될수업는 것이 原則일것이다.

그러나 展開하여가는 現代文化의 內部를살피여보면 그와는 正反對의 氣質이 充滿하엿섯다.

그것은 急進的唯物論者의 否定的精神의 世俗的解釋이 一代를 風靡하여서 一切의古典을 邪惡視하며 그道德을 그生活形式을 一顧할價値도 업는것처럼 생각하엿다.

그러한까닭에 現代的學文이 보다 確實한 體系를 所有하기 위해서 古典硏究의必要는 再論할것도업거니와, 其外에 所謂 辯證法을 信奉하는 學徒들은 一步를進하여서, 古典업시는 現代가 업다는ㅡ(그相互關係)ㅡ論理에서 古典을 探求하엿스나, 그러나 그곳에도 偏頗된 觀察이 잇서서 結局 完全한 結論을 엇지못하엿스니 그것은 唯物的要素만을 探索해서

自己 의 功名을 더하려함이며, 古典을그대로 硏究하야 現代의 完全한 體系를 形成하려는것이 아니엿다. 그것은 古典가운데 包含한 精神方面을 아수운데는 精神과物質의 適當한 調和가 잇는까닭이나, 現代에서는 古典의한편쪽만을 利用하려는데 또한 缺陷이 잇는것이다. 이제 第二로 古典이 우리에게주려는 貴重한 意義는 實로 이精神的 方面의 學問이다.

이와가튼 意識의 運用은 文學에도 同一한 過程을 밟게되엿다. 文學은 感情과 情緖의 文字的 表現으로서 滿足할수는 업는것이다. 그 가운데는 叡智가 君臨하지안흐면 아니되는것이다.

그러나現代文學이라는것은 官能的享樂的인標準이 表面的인데서 滿足하려한다. 生活의 表面만을 裝飾하려하며, 眼目에 보이는 色彩의快感만을 禮讚하려는것이다. 譜詩의讚美와 才談이 官能의 詩歌의 行勢를하며 生活의 奇怪한 風習ㅡ(모던이즘)이, 小說의 最高峰을 이루려는것이다。사람의 生活의展開는 그裏面의 마음의 底流를 探索하려는것이다, 따러서 意想의 分岐線上에서 叡智의

穿鑿 이 古典文學의 特質이라면, 現代文學에는 이것이 缺如되여잇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古典文學의 價値를 再認識하려는것은, 生活의表面이 아니고, 그底流에 잇고, 그物質에만 잇는것이 아니며, 深奧한 精神에잇스며 그狹窄한데 잇는것이 아니라, 그廣闊한 思索의世界에 잇는것이다. 또한 우리는 古典文學에서 現代文學에서 볼수업든 그 美麗雄壯한 美的世界가잇스니 現代文學은 그美麗雄壯한 作品으로도 到底히 古典을따를수업는것이다.

그러한까닭에 우리가 古典을 復興코자하며, 이미 復興되여잇는 事實은 그各各 妥當한 階段이라고 안흘수업다.

人生生活의 基本을穿鑿해서, 그表面的樂觀을克服하며 深奧한 叡智의 攝取로서, 浮動的思想의 空虛性을 補充하며 部分的眞理의誇張을 全體性에서 整理해서 보다더 雄大한 體系를 建設하며 俗惡한 消極化한 功利主義에서 美麗雄大한 存在를 만들어오며 物質的枯渴에서 潤澤잇는 感情의世界를

展開 시키며 曖昧한道德觀念에서 그理想的 生活을 暗示할수잇는 이러한 諸要素는 古典에서만 可能하엿스니 우리는 또한 반드시 古典의 延長으로서 現代를살려가지안흐면 아니되는것이다.

이곳에서 우리들이 가지고잇는 現代的文化의 缺陷을 補充할수잇스며 또그離反에서 調和에이룰수잇는것이다.

이와가튼 意味에서、古典復興은 時代의流行이아니라 오히려 完全한 新時代를 迎合하려는姿勢한 一準備過程이라고 나는생각한다.

新人詩叢

非力의詩 (外數篇)
柳致環

愛憐은 獅子 身中의 벌레
自虐의 잔(杯)은 膽汁가티 쓰도다
진실로 白日이 무슨 意味러뇨
나는 非力하야 앉은뱅이
日曆은 헤되히 목아지에 汚辱의 年輪만 기치고
남은것은 오직 즘생가튼 悲怒이어늘
말하라 그대 어떠케 오늘날을 晏如하느뇨

怨讐

내 憐憫에 피로한 날
차라리 怨讐를 생각하노라
어디메 나의 怨讐여 잇느뇨
내 오늘 그를 만나 입마추려 하노니
오직 그의 匕首를 품은 惡意아페서만
나는 항상 올코 强하엿거늘

五月雨

어디메 拔擢한 花林을
狼藉하게 못지르고 온 비는 또
나의 窓아페 종일을 부러 서서
비릿지처럼 무엇을 줄기만 한다.

뒷골목 (六)
◇平壤雜記帖◇
金南天

날파람 (承前)

아이들쩍에 드르랍엔 平壤사람은 밧는게 용하고、南道사람은 물어뜻는게 일수라하얏다。다리우에서 두사람이 맛부터싸우는데 손톱새어서 平壤친구가 디리바다서 南道친구는 물속다리미트로 떠러젓다고한다。그래 눈을 부릅뜨고『이놈 네까짓놈이 어데다 대구』하면서 平壤친구가 으스댓더니 南道친구는 입속으로 무엇을 쨀근쨀근 씹다가 해슥하니 우스면서『여보게자네 얼굴에 코가잇나 좀만저보게』하고 대답햇더란다。어느새에 平壤친구의코는 南道사람의 입속에 들어가잇섯다는것이다。

이것은 지어내인 우수광소리겟지만 하여튼 날파람하는것을보고잇스면 平壤사람들의 밧고차고 하는품은 神技에가까웁다。밧고찬다는것 보다는 차면서 밧는다는말이 더 適當할것이다。발로 이르대는줄 아럿는데 어느새에 니마는相對方의 대구리를 바더넘기고 바르다리는 敵의急所를 호려찬것이다。瞬息間에 여나믄놈을 파김치를만들면서 표변저럼 날세게 도라가는품은 果然 相當한氣力과 敏捷한技能이업시는 못할노릇이다。

大槪 勝負가 決定되면卒派들이先頭로서서 進攻과 後退로 大部隊의移動이 일어난다。敗軍의꽁무늬를따라 散散히 흐터지고 이긴편은 한참동안 敵陣을占領하엿다가 意氣揚揚하야 제동네로 도라간다。

그때에 날파람으로 이름난곳은 영문압과 神宮압廣場과 普通門이구엇든것갓다。神宮아페서는 七星門을 새에두고內外두편이 對陣하고 普通門안에서는 西門바패와 차광산패 또는 門안패가 서로 어울리지안헛든가한다。영문아페서하든날파람은 상압패가 일리는 때에는 가끔新倉里 길거리에서 일어나는적도 잇섯다。서울로 이를테면 鐘路네거리다 電車가다니고 自動車의 來往이頻繁하고 派出所가 서잇는아페서 편싸움이 버러저니 奇蹟이라아니할수업다。

그뒤 몃해를지내니 날파람은 漸漸 衰退하야 어른들은 손을 씻고 아이들끼리의 노름으로 化하야버리엇다。

지금부터 四五年前에 나는 平壤西門거리에서 장사를버려노앗든적이잇다。장사關係로 서로아는 三十살에든 친구와 영문압을지내는데 마침날파람이 始作되어잇섯다。한참서서 어린애들이 어르는것을여페서 鼓援하고 섯더니 피가끌어서 참을수업든지、맥고자와 웃洋服을 내게다 맛기며『가만잇수、오래간만에날파람 한번 해봅시다』한다。어처구니가업서서 빤히 처다보앗더니『에라 쎗가리』하면서 버선것을 훌훌벗어던지고 구니 아이들 틈으로뛰어들어갓다。

그러나 年年이 날파람은 衰하야갓다。지금은 날파람이란 말은 詭辯도、하나의死語로 되어지고잇는모양이다。

서울서도 平壤사람이라면 싸움을 잘한다는것으로 아는답지못한所聞이 난것갓다。어렷슬때보다 날파람으로 修鍊을 싸핫스니 無理는업스나 이것은 싸움도 날파람과 함께 自然히 사라진것이야 어찌하야 싸우기시작한게나 아닐가。처음 우리가 平壤으로 공부나와쓸때에는 거리에 나가기만하면 두세번 싸우는구경을 할수가잇섯다。

싸움의서초란 至極히 孟浪한것이 적지안햇다。술먹엇잔호편에 由로 두어마디 오락가락한끗치 싸움이다 일부러 걸지는 아니하엿지만 싸움이 되고보니 口論이나 입씨름부터 이러고보니 싸움기세를 수도업다 밧고차고 갈기는품이 到底히 날파람의 度가아니다。그러나 그곳에 모히구경꾼중에 싸움의 原因을 아는이는 하나도업고 또 이들이 무엇때문에 이리케 生命을 빼앗는 激烈한爭鬪에 몸을맛기고잇는지 그것을 알려고안타까워하는이도업섯다。마치拳鬪試合이나 柔道試合을 구경하는것과갓다。그러므로 當事者들도 自身을 一種의旗振者로 自處하얏는지모를일이다。拳鬪試合을 구경하면서 저들이 무슨宿怨으로 저러케 激烈한싸움을하고잇는가 그原因을 穿鑿하려는것이 無意味한것처럼 平壤사람들도 거리나 골목에서 이러나는싸움의 原因을 캐려들지안코 爭鬪의품과포ㅡ즈가 얼마나 아름답고 燦爛한가에 손에땀을 쥐는것이엇다。

이들은 무엇때문에 無意味한싸움에 浪費한 젊은血氣를 消費하는것인지 알길이업섯다 그러나 平壤의거리나 골목이나 料亭이나 劇場아페서 이러사움을 구경하는것도 옛날의일이되고마럿다。날파람과싸움은「文明해가는」『피양개명』에서 자최를감춘다(了)

『小……品』 鳳來傳 (下)
李殷相

우리는 鳳이와 離別한뒤에도 鳳이의 幸福을 爲하야 빌엇다。방울먹다말고도 안해는 鳳이 이야기를 끄러내엿다。자리에 누우면서도 나는 鳳이생각을 하엿다。

그親故도 鳳이를 더려간後에 誠意를 다하엿다。우리가 바라던바에 어긋남이 업섯다。그는 鳳이에게 朱門의 甲第를 지어주엇다。山海의 珍味를 먹여주엇다。

우리는 그消息을듯고 기뻐하엿다。그리고 날마다 그親故에게 鳳이의 安否를 물엇다。鳳이는 如前 便安하엿다。우리는 安心하고 몃날을 지냇다。

어느날 이른아침 親故는나를 차저왓다。무엇인지 不吉한 豫感이 머리를 치고 지나간다。

그는 나를 보고도 아침 인사조차 이저버렷다。나도 또한 接客의禮儀를 이저버렷다。그러나 내눈은 分明히 그의얼굴에서 그가 하고저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듯엇다。나는 가슴이 뛰어지는것가탓다 오히려 그의입에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안키를 바랏다。그러나 그는마침내 凶報를 머금은 두입술을열엇다。

『未安하네 무어라고 할말이업네』

내 가슴은 그말한마디에 문허지는듯하엿다。나는 아무대답도 업섯다。겻헤선 안해의눈을 바라볼뿐이엇다。안해의눈에는 어느듯눈물이핑돌앗다。그리고 서로다 아무말이업섯다。

그러면서 안해와나는 約束업시 鳳이의 옛집을 물그럼이 바라보앗다。거기鳳이의 幻像이 나타나는듯 쓸쓸이 아질때에 그옛집은 더한결 寂寞하엿다。

이윽고 그親故에게서 다시들은말ㅡ

鳳이는 어제밤에 삵이에게 물려가다가 뺏기는 하엿스나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린것이엇다。이번도 또 그옛날의傳說이되엿다。

鳳이는 세번째 물린 괴로운 삶이엇다。그 외로운눈물을 내어밀고 救命의 아우성을 치며 꼿 내품속으로 달려드는것만가타다。그리다가 다시 그 感慨업시 쓸어저누운 애처로운모양이 눈에어리어 견딜수가업섯다。

길가에 버림바든 외로운 生命 纖細한 運命과 싸우며 여기 괴로운因緣을 매즌지 겨우一年。鳳이는 이것으로 幸福과不幸의 鐵網을벗어나 永遠히 가버리고 말앗다。

그날午後。親故는 羊한마리를 끄을고와 鳳이의 죽엄을 代償하는것이엇다。나는 구저 辭讓하엿스나 그도구저 맷기고 가버리므로 우리는 어쩔수업시 그羊을바덧다。

안해는『鳳來』의 이름을 저羊에게 傳하여주자한다。그리고 새鳳來를 옛鳳來의집에두고 기르자한다。그것으로우리는 鳳來에게對한 안타까운餘情을 풀려하엿다。그러나 우리입에서는 鳳來란 이름이 참아 불러지지를안헛다。그리고 그羊을 볼적마다 羊은 變하야 鳳으로 보이는것이엇다。가버린 鳳이의 얼굴로。

ㅡ故友崔君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끗낫다。나는 숨소리업시 그이야기를 들엇다。鳳이의 이야기가 끗나자 내머리는 야릇한 생각으로 가득히찻다。이제 붓을바꾸어 鳳이를 위하야 銘을지여 부르노니ㅡ

봉아너는 오던날로 길머리에 버림받고 짜른한삶 내평생에 몃번죽엄 넘엇나니 무삼원수 지엇관대 삶이너를 해하더니 세번괴롬 흘리고서 네목숨을 일헛고나 부질업다 우리사랑 이올날이 업건마는 다버리고 갓것이매 네야무삼 상관이라 괴로움도 꿈이엇고 즐거움도 꿈이엇고 네인연이 꿋낫스매 본시대로 뷔엿도다。

鄕土文化
第四班 濟州島行 (四)
濟州島와 方言 (上)
方鍾鉉

濟州島를 말하는이가 흔히 女子가 만코 바람이 만코 돌이 만타고하는것을 들어서 이섬의 特徵가티 말하려는이가 만흐나 그러나 이보다도 나는 漢拏山을 說明하고 이섬의 方言을 밝키는것이 참으로 이섬을 알수잇는 重要한 事實이라고 생각한다

方言이라고함은 地方의言語를 이르라고하는말을 □린것이니 어느地方엔들 어이方言이업스리오마는 말의 特徵을따라서 方言을 다시 區域的으로 分하고 이濟州方言을 살펴볼때에 特히 一區로 獨立시키지안흘수업는 그러한重要한 位置에 잇슴을알겟다

特히『丶』音에 잇서서 아직까지 一定한 音을 現用하고잇는곳은 아마 이濟州方言을 除하고는 달리차즐데가 업는것인가한다

『丶』音을 文獻上에서 究明할수잇는 資料를 가지고 오늘의 語音과 比較하면서 여러音으로 使用되어업게된 이때이다

그것은

ᄑᆞ리(蠅) 파리、포리
ᄒᆞ(爲) 하、허、호

이 두個의 例示만으로도 알수잇다

다른 여러方言에서 ᄑᆞ리(蠅)를 파리 或은 포리로 말하고잇스며 ᄑᆞᆺ(小豆)을 팟、폿、으로、ᄆᆞ올(村)을 마을 마실 或은 모올 모실로(실은 音關係)말하야 古音『丶』音이 오늘에는 一定한音을 일허버린것이라고 볼수박게 업게된 이때이다

그『丶』音그대로가 今日까지 이濟州島에 傳해오는것인가아닌가에 對해서는 다시 우리의 再檢討를 要하는것이지만도 이『丶』音字에 限하야 陸地의 어느地方과도 다르게 一定된 特別한音을 發하고잇는것이 事實이다

『丶』音의字를 四百年前後의 古諺解書에 依하야 準備하여가지고 이섬의方音과 比較하여보면 틀림업시 이『丶』音의字에 限하여서만 똑가튼 特別音을發하고잇스니

ᄆᆞᆯ 馬
ᄑᆞᆺ 小豆
ᄡᆞᆯ 米
ᄃᆞᆯ 月
ᄯᆞᆯ 女
ᄯᆞᆷ 汗
ᄉᆞᆯ 肉

이 □에는 똑가티『ㅏ』도 아니고『ㅗ』도 아닌音을 使用하고잇스며 또 漢字의音에 잇서서도

文字 문ᄌᆞ
自己 ᄌᆞ긔
牧使 목ᄉᆞ
四月 ᄉᆞ월
生死 ᄉᆡᆼᄉᆞ
思想 ᄉᆞ상

이들의 音에서 보는바와가티 現在一般音으로는 모두『ㅏ』音으로 發하고 또 그러케 使用하고잇는字임에 不拘하고 이濟州方言에 限해서만 學校를『ᄒᆞᆨ교』로發音하지안코 分明히『ᄒᆞᆨ교』로 말하야 特別音을 發하고잇스니 이濟州方言의『丶』音이야말로 音의保存上 乃至發達上 重大한位置를 가지고잇는것이라고하겟다

擁土童來의藝術聖戰
第三回全朝鮮男女音樂콩쿨

一開催期日……九月中旬……申請期日……九月五日
一曲目……二曲을演奏하되一曲은本會指定曲을取하고一曲은隨意로함
【聲樂】(1) Der Wanderer(放浪者)=슈벨트 (2) Ave Maria (아베·마리아)=슈벨트
【피아노】Impromptu (卽興曲) No. 4 (作曲九〇)=슈벨트
【바이올린】Concerto (協奏曲) No. 6 (B Flat) 一樂章=모ㅡ테
【發表】本社事業部에서直接通知함
參加資格……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事業部로交附함 (但한번申請한뒤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褒賞……入賞된분에게는本會로부터콩쿨賞을授與함
審查委員……金永煥·洪蘭坡·朴慶浩·玄濟明·桂貞植·金元福·鄭勳謨·朴泰俊·李寅善·金成勳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新刊紹介

▲朝鮮銀行統計月報 三月分 發行所 京城府南大門町三丁目朝鮮銀行 定價五十錢
▲朝鮮商工獎勵館報 五月號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三五 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內朝鮮商品調査硏究會 定價十錢
▲朝鮮監理會報 第七十九號(月二回) 發行所 京城府合泉町三一 基督敎朝鮮監理會總理院 振替京城一八三七三番 定價一部五錢
▲主日學校申報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朝鮮主日學校聯合會 振替京城一四六三八番 定價一部四錢
▲白假面 (冒險探偵小說) 金來成著(內容) 머리말 姜博士遭難 劉不亂先生 秘密手帖 盜賊 두려운 밤열두시 맹인 地獄 屋上의怪人 마조선奏銃 추에마주선假面 假面을벗겨라 大準의計巧 朴文彬 무서운機械 스파이戰 엄청진疑問 意外 外數篇 發行及販賣所 京城府堅志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定價七十錢 送料六錢
▲朝鮮行政 六月號 發行所 東京市京橋區銀座西七丁目一 帝國地方行政學會 振替東京一三番 定價五十錢 送料二錢五厘
▲時兆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淸凉里町 時兆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二錢
▲룸비니 第二輯 發行所 京城府明倫町一丁目一 中央佛敎專門學校學生會 非賣品
▲現代朝鮮文學全集 隨筆紀行集 第四回配本(內容) 金剛山見聞錄 登陟記(外三篇) 李光洙 春風千里(外一篇) 安在鴻 石泉遊記(外三篇) 李殷相 …金東仁 落書…李泰俊 …記(外一篇)…梁柱東 그믐달(外一篇)…故雜彬 山城의正午(外一篇)…朴花城 牛日城巡禮記(外二篇)…故沈熏 懷鄕(外二篇)…李源朝 鄕土有情記(外一篇)…李善熙 病院(外四篇)…朴泰遠 고달픈女人(外二篇)…金晋燮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一圓二十錢 書留送料二十二錢

漢詩募集
題 蓮花
押 春
限 六月十日

漢詩
題 梨花　押 香　桐岡考選
佳作之八　通川邑長里 柳相赫

十分灔泊九分香
我屋廬明透夜光
月來皎潔銀千斛
風打紛繽雪一塲
未聞天下如君白
唯惜人間錯衆芳
問是楊妃安在否
依俙似對舊時粧

本報當選作家短篇리레ㅡ

岐路 (三)
金廷漢 作　崔根培 畵

이튿날아침 은파는 오랫동안 버릇된 늦잠을 엇지도 일적깨느티고 어지간이 힘이들엇다。그러나 두보는 어느새 일어낫던지 방안이 그득하게 담배연기를 피워노코 눈이 아수 말뚱말뚱 해가지고 도사리고 잇섯다。

『곤하지ㅡ?』
『편안허요』
『이제막 만식이가 와다갓서ㅡ』
『뭐다구해요?』
『마침 비엿이 잇대ㅡ』
『그럼 잘됏군요 일은ㅡ?』
『영아 잇슬ㅡ지 오늘 주임허구 잘의론해 보겟다구했서』

그들은 조반상을 물리기가바쁘게 그러나 마음을 조리거리며 만식이가 일부러 변통해준 집구경을 하기위하야 안흥내ㅡ개울봉농으로 들어갓다。

그들이 차저간집은 바루 동리어귀에 잇는 예전 서당이엿다。뒤로는 제법 참대바리 죽ㅡ에워싸고 제목가튼것도 굵직한 통기둥만 보더라도 지을때는 꽤 조흔놈만을 골라쓴 모양이엿스나、세운지가아수영 오래되여나왓다。

그리하야 겨우 모다모다 붙이 이는것을 보고는 다시 곰팡냄새가 코를 찌르는 방으로 들어갓다。방안에도 어느듯 매운연기가 자욱하엿다。굽도리가 사뭇헤여젓기 때문이다。

그는 여나마나한 문을 그래도 열어젓뜨리고 마침 한구석에 떠러저잇는 몽당집비자루를 얼는 주서들엇다。그러나 총총드리 흙이 들어난 방바닥이니 아무리 깍드시 쓸을 쓰나마나다。

그래도 제방이라고 마음노코 퍼저안자서 찡얼거리는 애기를 내려안고 겨우 젖을 물려주고 생각하니、그방이야 말로 은파에게는 한우님보다도 낫고 따뜻하게 여겨지리보다도 든든하엿다。

그럴때 마침 설주만 낡으차리밧게서 아이들의 숙덕거리는 소리가 들렷다。

『무엇인가?』
『아ㅡ냐。』
『그저 거지?』
『아수영 하이칼라상이다、얘』
『뭐?』

新富座
六月一日부터四日間 (特別名畫大公開週間) 十日祭記日晝夜二回正午ㅡ六時 晝夜間七時卅分 大衆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今週에限하야는特別興行
◇大每事變卄ㅡ쓰 ◇大日本總天然色映畫社超特作品 現代名畫全發聲版 唄へ靑空 監督 近藤伊與吉氏 主演 花井蘭子 金澤一郞 新島一二
日本映畫의初有色天然色映畫 ◇三映社特作全發聲日本版 見失ひ・マイ・ら 戰爭活劇 肉彈山岳戰 監督主演 루이스도렌카氏
◇半島映畫社本年度超特作全發聲 日本版 朝鮮語全發聲現代名畫 漢江 監督 方漢俊氏 主演 李錦龍 金一海 尹逢春 異聚燕 玄舜英
京城新堂町(本)五六七七番 新富座

若草劇場
五月三十一日より七日間
朝日ニュース 大奴隷船 6·40 3·00 11·30
毎日ニュース 太陽の子 6·50 3·10 11·40 / 5·25 4·45 1·15 / 8·35 4·55 1·25
(1) フオックス・ツヴオーレス・ピアリ・ワーナー主演 ピ・スクエアタ
(2) 東京發聲製作・東寶配給・大日方傳主演 初戀
原作 …

中央館
毎日晝夜二回興行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一時 七時
永樂町 本二〇一四
讀賣ニュース
ハヤブサ・ヒデト 大河内伝次郎主演
魔人幽靈塔 第一篇
ラ・ヤ・ナー嬢主演
空中劇場
松竹 … 元祿かくら帖

黃金座
日活
六月一日ヨリ 六月五日マデ
京日ニュース 1·40 6·20
巨猫傳 1·50 6·30
朝日ニュース 11·00 3·15 7·55
戰士の道 11·10 3·25 8·05
パ社ニュース 12·13 4·28 9·08
ビシグゲーム 12·23 4·38 9·18

桃花劇場
◇外社特作全發聲日本版 ハリウッド大通り 監督 로이 델 루ㅡ스 主演 알리스 페이 ...
FOX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폭풍의 神 監督 아루프잉크 가링크스 主演 마이클 … 로리와트스데와트 작크헤ㅡ이
電光 二 … 番

六月一日부터四日間 每日晝夜二回 晝一時夜七時三十分 始映 大衆料金階上三十錢 階下十錢均一 松竹大船特作品 現代名畫 母の夢 監督 佐佐木康 主演 …
단十錢

本社主催 滿北支産業視察團座談會

農、商、工、鑛業과 都市經營、人情風俗

各方面視察의 感想이 어떠한가

産業界의 도음이 되자

咸編輯局長 今般本社가 主催한 第四回産業視察團에 參加하야 滿洲로 北支로 數萬餘里의 먼旅程을 無事히 다녀오신데 對하야 無限한 慶祝을 올리나이다 元來라면 旅裝을 푸르시고 便安히 자리에 누으시는것이 올흘것이나 여러분은 朝鮮의實業家로써 우리産業을 代表하실만한분이므로 여러분이 보고 느끼신대로 感想을 말슴하시면 우리社會에紹介하오면 單只여러분뿐만아니라 우리産業界에 도음는바가잇슬가하와 이座談會를연것이오니 新聞만感想을말슴하십시요 이에는여러가지方面으로 보시엿슬것이온데 例하면 農業、商業、工業、鑛業、都市經營、人情風俗等에 여러가지方面으로 이모저모말슴하여주십시요

吉林省農場

東亞産業會社功績莫大 지금은營利會社化

玄晟運氏 貴社가主催하신産業視察團에 參加한것은 主로農場을視察하려고 하엿스나 巨離와 視察場所가 넘우나 만키때문에 走馬看山格이되여 自己의 마음과가티 잘視察은하지를못하엿습니다 今般에 視察한 農場은 吉林과 牧丹江에서 보앗는데 牧丹江에서는 今後農場을 經營하면 大端히 期待되는바 잇스리라고 밋습니다 다음吉林省에 드러가서 農場을 視察하엿는데 여기서는十戶、二十戶式 떠엄떠엄잇섯습니다 그런데 그中에도가장注目을 惹起하는것은 東亞産業株式會社이엿습니다 이會社는 內地의 産業組合과 달러生産者와 生産者가 自治的으로 結合하야가지고 吉林附近約三百里 平野의 區域을範圍로 組織된 協同組合이엿다 한다그래 그組合員이 六千名을算하야 農具製造、或은 白米를 만드는 白粉石粉等까지 도一一히 이組合에서 만드럿다하니 在來의 朝鮮人의勞力이 얼마나 컷섯는가를 可히알수잇습니다 그러던것이只今에와서는 營利事業으로 化하엿스니 얼마나 遺憾인지알수업습니다 直接組合이 悲運

玄晟運氏

에 빠진것은 生産者가 農産物約 五萬圓어치를 賣買한것이 그 原因인데 只今에 와서는 어便利한 機關이 업서져서 生産品을 販賣하는데或은 購入하는데 여간苦痛으로 지내는것이아니랍니다 그런데 그後이組合을數人이 引繼하야精米所를經營하기로되여 五十萬圓資本金의 東亞産業株式會社를 組織하엿다합니다 그런데 그資本金의 四分之一 即十二萬五千圓은 이미拂込되엿는데 그中에도 어拂込金의 半分은 會社의 株式金으로 주기로하고 남은半分은 주지못한다고하엿습니다

滿洲엔米檢업서 農民의不利만타

그런데 滿洲에서는 米穀檢査規則이 업는 關係로 이東亞株式會社에서 定하는金額이白米의 價格을 決定케되는獨占舞臺되는것입니다 그래서 時價十四五圓하는 米穀이 六、七圓까지 低落하는 境遇도잇스니 어것으로 얼마나滿洲、吉林에잇는 農民들이 苦痛中에잇는가를 알수잇습니다

『土地投資』有利

朝鮮보다조타

閔泳昌氏 今般滿洲、北支를도라다니는 가운데에 여러가지로 본바 드른바도잇지만 大體로朝鮮人移民에對하야 禁止하는 便가튼感이잇습니다 滿洲에는 그럿치는안치만 北支에가서總督府派遣員의 說明을드르니그런感이잇습니다 第一먼저 吉林附近에서본農場을 살피보면 一人當十五晌(一晌二千四百坪)을 經營할수잇는데 어것은 朝鮮에서經營하는 自作農에比하면 大端히 有利하다고할수잇습니다 따라서 約三年만하면 조금貯蓄도할수잇고 또土地를살수잇습니다 그리고 一戶當稅金도그리 만치아니하니 어것을보더라도朝鮮보다는 利益이만타고보입니다 牧丹江、哈爾濱等地에는荒蕪地가 만허서 어方面에 土地資本이進出하면 大端히 조흘줄밋습니다

閔泳昌氏

滿洲國移民制限

大資本經營不許

끄트로 滿洲에 投資하라면 土地投資인데 移民은 總督府와 滿洲國當局의 移民에對한協定이 締結되여 制限되여잇는 形便입니다 資本을投資하는데도 大資本으로써의 農場經營을 滿洲當局으로써 許諾하지 안는바이니 말할것도업지만 移民政策에도 只今말한바와가티 여러가지 制限이잇서 容易하게 農場을 經營할수는 업습니다. 이移民에 對하야 朝鮮人을 爲하여서는鮮滿拓殖會社가 엿고 日本內地人을 爲하여서는 滿蒙開拓會社가잇서 移民하고잇는데 內地人은 五個年間 百萬戶를豫定으로 하고잇서 全部 自由移民이다 그우에 어들에게는移民에關한 여러가지 補助도만코 또 移民하는 地方도比較的 豐富하야 水田開發에만흔 貢獻을 내고잇서 繁昌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朝鮮人에는 一年 萬名式 移住키로하엿는데 比較的場所도 肥沃치못한곳이 만흔關係上 그리 發展치 못하는것갓습니다

海産物의 輸出有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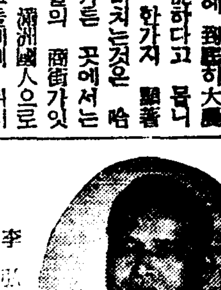
精米業도조타

宋丙雯氏

宋丙雯氏 朝鮮人의移民은 危險地帶로 或은荒蕪地로 가게되는일이 만키때문에 到底히大農經營은 不可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顯著히 우리눈에 비치는것은 哈爾濱이나 奉天가튼 곳에서는 外人들은 外人들의 商街가잇고 滿洲國人은 滿洲國人으로서의 商街가 그들에게 뒤지지안코 侵透하고 堅實히 存在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朝鮮人으로서 有望한 事業이라면 海産物이 稀貴한곳이므로 其輸出을 圖하는것이 조흘것이요 또滿洲人이精米業을 經營하는곳이 적은까닭으로 大規模精米業이 지금까지도 成績이 조타지만 아플으로도 前途가 잇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玄晟運氏 그러데 外觀으로는滿洲人이 經營하는商業도 相當한地盤을 가지고잇는것가트나 滿洲人의 國民性關係로 外人여러분後에서 經營하면서도 外觀으로는 滿洲人이 經營하는것가티하는것이 其大部分입니다

印刷業進出必要



李弘基氏

李弘基氏 朝鮮人으로서는아직滿洲工業에 着手하여 는업는것가트나 제가印刷業을하는關係上 印刷業을注意하고보앗는데 原料는 이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不足하고 印刷의市價가 顯著히高價임을보아서 新興國家이니만치 需要도만코 또勞貸도 低廉한것等을 考慮하면 퍽有利한方面이라고 생각하엿습니다

朝鮮人商業 대단히훌늉

大資本으로經營中

咸編輯局長 農業方面에는 만히 말슴하셧스니 今般에는 商業方面에도 말슴하여주서엿스면 조켓습니다

孫鎭洙氏

孫鎭洙氏 今般은 旅行하는 巨離가 大端히 길고 또朝鮮에 比하야 곳도 만허서 그만한 時日로는 到底히 全部를두루 視察하는수업섯습니다 그러나 視察하는 中에서 豫想外로 생각한것은 各地에서 朝鮮人이 經營하는商店이 大端히 훌륭하다는것입니다 特히 牧丹江에 잇는 朝鮮人市街地가 다들 훌륭한것입니다 商品은 內地朝鮮等地에서 輸入하는데 都賣商이라던지 小賣商이 모두大資本으로 經營되여잇서 大端히반가웟습니다 다음撫順으로드러가서는 여기에서도 朝鮮人이 그리窮塞처안케보이는것이 大端히 滿足하엿습니다 다시 北支에 드러자 北京에가니까 市街와 商店의 經營이 宏壯하야 우리朝鮮市街보다는 그規模와發展의 程度를 比較할바아니엿습니다

朝鮮産品輸出엔

格別한硏究가必要

商業道德이缺乏!

玄晟運氏 今般視察中에 商品方面에對하야 느낀바는 滿洲特히 北支方面에서는 商業道德이 全然업다는것입니다 우리朝鮮人의 商業道德이 不足하다 商業이 繁盛되지안는다고 世上에서말하는者가 엇스나우리朝鮮人의 商業道德만이라도 가지고서 商店을 經營한다면 훌륭히 成功할수잇다고생각합니다 北支는 朝鮮과比較하야 唐材가튼 漢藥은 四割乃至五割이나低價이나 爲替關係로 貿易이 大端히 困難합니다 아니거의商業이 杜絶狀態에잇스나 더硏究할必要조차 업슬가 생각합니다 北支에 朝鮮의産物을輸出하려면 果實 海産物等 或은 野菜等도잇스나 只今말한바와가티 輸出不可能한 狀態에잇스니 어찌합니까 萬若輸出할수잇다면 支那人의 嗜好에맛도록 商標 包裝等을 더욱硏究하야 輸出하면조흘것이라고생각합니다 어에 한가지 생각되는것은 北京에 東亞商事株式會社(百萬圓 資本金)를 設立計畫中 인데어 其目的은 支那에잇는朝鮮人을 救濟할 目的이라하며 貿易의 主되는商品은 支那에잇는 唐材漢藥을 朝鮮으로보내고 朝鮮서는 朝鮮의特産品을 輸入하려는것인데 아직 計畫뿐이라합니다. 그리고이會社에서는 亦是爲替가 問題中인데 이것은 總督府에 諒解를 엇기로하고 持株者는 朝鮮內地의 富豪도나와주기를 바란다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只今말한바와가티 그前途를 무엇이라고말할수업습니다

資金不足이遺憾

金泰彦氏 金銀細工品方面은 技術로보나 무엇으로보나 朝鮮以上으로 卓越하엿고 陳列窓의陳列도 훌륭하지만 在庫가 豊富한데는 더욱 놀랏습니다 이곳에서는 업는물건도 잇는체하고 가장華麗하게 陳列窓을만채우는것을 흔히보는것에比하면 퍽眞實하엿습니다 이것은 北京에서 더욱느낀것인데 資金이不足한關係로 有利한事業을 잘알면서도 着手하지못하는傾向이만허서 貸金業者들은元金에서二割을除하고주면서도二三人의 保證人과擔保를맷고야貸付하는것等을보면 有志數人이合資해가지고 貸付를主로하는貸付機關이 進出하여도 조흘것가티생각합니다

金泰彦氏

閔泳昌氏 張家口附近 太原에는 世界에서도 第一가는『펜실바니야』에 比하여서도 遜色이 업슬만한 一百億噸의 埋藏量을 가진炭鑛이잇고 三百萬噸으로 想像하는鐵鑛이잇서 開發中에잇스나蒙疆自治委員會라는것이 잇서서 絕對로移民을 밧지안는곳도 잇섯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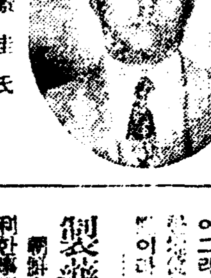
任鍾敏氏 要컨대 商業이나 工業이나를勿論하고 資本不足이 問題이므로 뜻잇는同志가 小額을모아서 大資本을 抱擁하는 大會社를 組織해가지고 組織

物産客主와 運輸業兼營

玄晟運氏 北京에서는 支那人이 貨物車를所有하지못하므로 貨物運輸에적지안흔 不便이잇스나 朝鮮人은 軍當局에交涉을 어드면 可能하다는所聞을드럿는데그것만어드면 物産客主를兼營하면서 運輸業을한다면 여러가지方面으로 有利할것이라 생각합니다

奉天驛에서 視察團一行記念撮影

進出最有利地 牧丹江方面



金景圭氏

金景圭氏 大規模나 小規模나를 勿論하고 其經營方法의 如何에 만흔利得을取得하면 저뭇有利하게展開될것이나 地域的으로는 亦是吉林보다는 奉天、奉天보다는 牧丹江方面이라고 보앗습니다 朝鮮人은 商業經營에서 朝鮮人은 朝鮮人만을 相對로 內地人은內地人만을相對로 販賣政策을取함에反하야 滿洲人은 朝鮮人 內地人滿洲人을相對로 하는것이그래도 아직까지는 優越한地位를 차지하고잇습니다

製藥도有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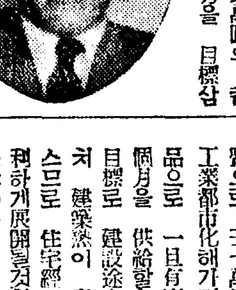
朝鮮人으로서 그곳에가서有利한事業이라면 製藥가튼것인데其理由는 原料와勞貸이 低廉함에反하야 製品은 이곳보다 倍以上을 바들수잇스니까요

기와와벽돌

四、五萬圓資金으로 製造工場이어떠할가

張石鎭氏

張石鎭氏 滿洲나 北支나를 勿論하고 資源이 豐富하고 勞働力이 豐富하므로 工業發展上모든 條件이 潤澤하나 우리 朝鮮人으로서는 어려운 方面이 여러가지로 잇습니다 條件下에서라도 資本과 技術이 不足하므로 아직까지는 困難하다고 보는것이 妥當할것입니다 그래서當分間 朝鮮人으로서 工業方面에 進出한다는것은 가장困難할 現狀입니다



金毅文氏

金毅文氏 마치 活動寫眞『뉴-스』를 본것가터서 무엇이라고 具體的으로 말슴할수가업습니다 더욱이時間이 不足하야 數字的으로 調査할餘暇가업서서 仔細한것은 몰으겟스나 工業이나 鑛業은 利權問題인데 이利權獲得은아직朝鮮人에게는 遼遠한問題이나 오직小資本을 가지고도 有利하다고생각한것은 滿洲國은 新興國家이니만치 建築熱이 熾烈한데 기와나 벽돌製造하는工場이적다고하니 四五萬圓의 資本을가지고 一地方을 目標삼고製造에 着手하면 압날이엿슬가합니다

金亨均氏 北支方面의 朝鮮人은事變前에는 어떤事業들을 하엿는지는 모르겟스나 事變이發生한後부터는 大部分이 軍用達을하는데 七千餘圓의 資金으로 戰線第一線까지만가면七乃至八倍의 利得을 回收한다고합니다

金景圭氏 特히牧丹江은 重要한軍用地帶로서 各方面이 活潑한現狀을呈하고잇는데 五個年計劃으로 三十萬戶를 建築하야工業都市化해가지고 當地生産品으로 一旦有事之秋에는 三個月을 供給할수잇도록한다는目標로 建設途中에 엿느니만치 建築熱이 高潮에達하고잇스므로 住宅經營도 아프로有利하게展開될것입니다

咸編輯局長 오래 동안의 遠距離旅行으로 疲困하심에도 不拘하고 이가티조흔말슴을 만히 들려주서서 感謝합니다

二日正午부터 座談會開催

本社貴賓室에서

本社主催第四回 産業視察團一行二十二名은 滿洲北支視察을 맛치고 二日午前七時二十五分 京城驛着 無事歸京하얏는바 그視察所感等을 滿天下讀者에게알리어드리고저 二日正午부터 本社貴賓室에서 本社側으로 視察團長 本社主筆李勳求氏、編輯局長咸尙勳氏、營業局長金光洙氏、調査部長李甲燮氏와 視察團員을 이모여서 座談會를열고 視察報告兼을하야長時間隔意업는 意見交換을하얏는바 이제 그內容을 紹介하면 如左하다

(寫眞은座談會光景)

視察團員名簿

團長 李勳求 (本社主筆)
李甲燮 (本社調査部長)
金毅文 (商業)
李弘基 (日新印刷株式會社專務)
李鍾勳 (商業)
金亨均 (商業)
崔名鳳 (建築業)
趙斗熙 (商業)
張石鎭 (釀造業)
李鍾淵 (農業)
任鍾敏 (商業)
金建亨 (大同土地會社專務)
崔基郁 (商業)
金泰彦 (商業)
玄晟運 (農業)
閔泳昌 (農業)
金景圭 (商業)
孫鎭洙 (商業)
宋丙雯 (米穀商)
金鎭洽 (鑛業)
金漢福 (商業)
宋祚九 (商業)

移民安全이 急務

朝鮮人의活躍舞台

金建亨氏談

朝鮮日報社主催第四回 産業視察團에參加하야 滿洲、北支에總四千二百餘키로의長途에 九個都市及農村을十七日間이란 最短期間의旅程으로 走馬看山式인視察을하고나니 적이心神의疲勞、困憊함을 느겨진다 그리고보니 보고 드고한 한두만흔資料와 느낌을 分析、整理하여 妥當한感想을 發表하기에는 不可能한바이다 그러나 無秩序한感想이나마 簡單이적어볼다면 먼첨드끼는는 豆滿江을건너 圖們에서國境을入口에 드러서서부터 東北南滿及北支各線에展開된 一望無際한曠野에 驚異를不禁하게된다 日出月沒이 地平線上에서 始作되는 無邊曠野、土質은肥沃한데 아즉도 人間의 발이 보지안흔 無涯한曠野 우리朝鮮山川처럼 山과山으로包圍되고 그狹谷에窒扁만한 耕地만을보든 人間으로서는 想像조차 不許한大地大陸이란意味와 偉大性을 於是乎認識하게된다.

그리고 다음은 滿洲帝國의新興都市를 各一日間式巡訪、視察하고나니 滿洲建國 五個年計畫에 偉大性을 느끼엿다 都市마다 現代式高層建物이 櫛比屹立하여 偉觀을呈하엿고 交通과道路는 舖裝整備되고 商街도優美繁榮하고 또한文化機關의擴充됨이! 先進都市를 凌駕하고도남는感이잇섯다 何如間五個年이란短時日에 新興한 偉大한建設에는驚嘆안할수업섯다. 以上事實로想像컨대 滿洲國에政治的安定性과 經濟的飛躍的發展及文化的建設에 躍進的表現으로 믿는바이다.

그리고다음은 現今滿洲國人이된 朝鮮人에事業과生活狀態인데 農商業及官吏、會社員이란 正業에就하야 滿洲堅實한 地盤을갓게되고 따라活動舞臺가 擴充展開되여감은 慶賀할바이다 滿洲國에 國是가五族協和로 王道的國家를建設하는 大理想에잇다한다 即 滿洲國의國民은 조곰도 民族的差別이업시 機會均等과平等의地位에서 自己에適任、適材대로各自所信의事業과活動을 發展、展開할수잇다한다 그럼으로 廣漠無涯한 肥沃한平野는 農業의開拓을기다리고잇고 新興諸都市建設은 商工業의 企業을기다리고잇다 故로堅忍不拔의意志와實力을가진 朝鮮人士는 바야흐로 크게飛躍할舞臺로 思惟된다 不撓不屈한精神으로 實踐力行하면 將來는成功이 約束될줄밋는바다 그런데 極히遺憾된바는 最近에서 農耕地移民問題에對하야 嚴限、制限이생기지안흔가하는 憂慮이놋고잇는바이다 하루바삐 總督府當局이 滿洲國과 善處折衝하야 急速解決을 除去하야 다못朝憂에 갓치도록 滿洲朝鮮農民의 生活及事業上確乎한 安定을주기바라는바이다.

마즈막으로 北支를視察한바 古代文化의 發生地인만콤 燦爛한古代文化에는 스스로 感歎을不禁하엿다 秦始皇의 壯大한 萬里長城도 壯觀이지만 建築、工藝、美術에나 世界에外漢이지만그規模의 雄大함과 또는華美整頓함은 他에를 不許할바다. 門外漢이라도 感服시키고야말만큼 偉大하게느끼엿다 北支亦是 水畓에適合한 平野가幾個이던지 展開하여잇고 商業도 活潑한 步調로 殷盛하고잇다 다른再度말하면 滿洲以上 有利한바잇슴을보인다. 皇軍의 實威로 治安이常整되여 危險性은 除去되엿다 故로 有爲한 朝鮮人士의 活躍할舞臺이며 도한只今이 그時機가아닌가한다 何如間 今番旅行이 走馬看山式이나마 大地、大陸에對한 槪念만은 어든 感이잇다. 主催者 朝鮮日報社에 萬腔의謝意를表하며 아울러 引率者兩氏의多大한勞力과 善導하심에對하여는 衷心으로 感謝하는바이다.

大部分이農業

崔基郁氏談

十八日동안이나 長距離旅行을 繼續함에 團員一同이 아무故障이업시 萬里旅程을맛친것은 團員의紳士的態度와意義가잇서 視察團에參加하야 熱誠으로 滿洲와北支를硏究해보리라는데서 나온結果라生覺하고 團員의一分子로써 團員諸位에게 感謝하나이다 또今番旅行中 갈곳마다 異域에서 活躍하시는 同胞諸氏께서 우리視察團에만흔 指導를주시며 厚待하여주심에對하야서는 어떠하다고 感謝의말슴을 드릴바를모르나이다 悠少한朝鮮內에잇다가 平原曠野의滿洲를보매 于今것死藏이되여잇든 無盡藏의富源이 皇軍의힘밋테 治安이維持되여 開放된듯합니다 아또 日本自體를爲하야 共存共榮의 東洋平和를 樹立함에는 指導者와 被指導者가 協和主義下에서 産業과 經濟를開拓하여야할것이라고 生覺됩니다 滿洲나北支에서 居住하는 朝鮮人이約百萬人이라하나 大槪는 農業에 從事하고 商業이나 其他産業에 從事하는이는 少數로工業은 資源이不完全하고 또統制와 經驗이不充分하야 被者彼、我者我의感이잇습니다 朝鮮內地에잇는朝鮮人으로서도 좀더 關心을가지고硏究하야 進出함이 조치안을가 합니다 今後로도 視察團으로朝鮮日報로서 一般人士에게 後援하야 硏究者를 내게하시기를바라며 細細한 事情으로 말할수업고 大略感想談이라할가 이만

農村의副業으로 楮栽培積極奬勵

現在에도年産五十餘萬圓

慶北山林、農務兩課提携

【慶北支社發】朝鮮紙의原料이楮皮의 慶北道內年産額은 約五十六七萬圓으로 이는農村婦女의손으로 簡單히生産되는 手工業이니만치 生産費의低廉한것과 朝鮮紙의將來需要擴大를 豫想하고 慶北道에서는 十三年度부터 楮栽培의 一大增産計劃을 세우고 道山林、農務兩課提携로 그指導에着手하리라고한다 어楮皮는一斤當二十二錢의高價로 一反當八十圓乃至百圓의收入이잇서 他農作物보다 倍의 收入이잇는터로 그前途는 매우 有望하다고한다

南原麥作

降雨로大打擊

【南原】今年 南原地方의 麥作狀況은 지난春播期에 旱魃이엿서 원래 減收를 豫想하여왓섯고 다못成熟이나 잘되기를 一般農家에서는 希願하여 왓섯스나 二十九日早朝부터 시작한 三十大머리의 降雨는 바야흐로成熟期에잇는 麥作에 至極히不利하야 一層의 麥凶을 難免하게되엿스며 移秧期를압둔 가리논에도 不利하야 근심만흔農家에愁心은 떠날새업시더한바잇다한다

高敞의桑田大肥培

郡農會技手總動員

【高敞】全北高敞郡農會에서 桑園培養을 等閑히한것을 今年부터 本郡郡守 金五燮氏로부터 大大的으로 全郡桑田에肥配管理를 徹底히하엿다 그래서 今後로는 相當히 增收할것이라는데 農村副業으로 大端히 注目된다

림질 循環感染의 방지에 銀의 內服!

性病이原因이되여서 즐겁고 행복스러운結婚生活이깨트러저버린實例는 이로세여볼수업이 만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림질의相互感染으로 인하야생기는 가정의비극은 실로말할수업이 참혹한일이며 부부중에 어느한분이던지림질에걸닌때에는 서로협력하야서 그不快한림질을치료하지안이하면 가령한편이나엇다고하야도 곧또하편으로옴드게되여서 즉循環的으로感染하야 도저히그근치를바랄수는업고 점々惡化擴大되여 결경은不姙 流産파갓흔중세의原因되는무서운男子의副睾丸炎 膀胱炎 女子의卵巢炎 子宮內膜炎을 비롯하야여러가지極惡중증을倂發하게되는바이오니 부부간의림질치료는 특별히 진중한주의하에서 더욱굿세인결심을가지고 치료하여야만됩니다

銀內服의達成!

예전부터림질치료에는 여러가지방법이잇섯스나 單一의內服藥은 살균력이대단히약하고 더구나위장을해로옵게하는 副作用이잇고 또 外用局部치료약은 사용상 여간불편과 번거로움을줄뿐만아니라 만약조곰이라도 그쓰는법을 잘못하는때에는 오히려림균을깁히국부속으로침입식혀서 점々곳치기어렵게하는 여러가지 결점이만헛든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에서 發明된「金屬오르가노香製法」을應用하야창제된 治淋新藥「바로-루」는 모든치림약중에서도 가장강대한살균력을가지고잇으면서도 從來에는 다만外用局所藥으로만사용되고잇엇든銀劑를 完全히內服藥으로만들기에成功하야 그효력범위를强化增大한약인까닭에 內服藥으로살균은못된다는 지금까지의學說을 根本的으로 뒤집어놓은 최신발명의치림신약입니다

强力한醫治作用!

內服으로因하야 腸壁으로吸收된「바로-루」의强烈한약효는 곧안개와갓흔 아조적은코로이도狀이되어서 血液속으로침투되야 血液의循環과同時에 神速히體內의極深部 微細部까지완전히침입하야 위대한효력을發揮하며 륵히부인의떼리케-트한 내부질환에도 直接作用하여서 림균을徹底的으로복멸식히며 고름과아품을당장으로없애서 환부의회복을정확히 하는新生作用을하는까닭에 환부의刺戟 胃腸障碍갓흔副作用은 絶對로없고 더구나內服藥과外用劑의두가지作用을兼하여 내부로부터외부에특별한醫治效力을發揮하여줌으로 부부간의림질치료에잇서서는 그相互治療의目的을간단히達하며 순환감선을 미전에방지할수잇는 매우유효적절한新治淋藥입니다

京都帝國大學 化學研究所創製 (製法特許)

바로-루

바로-루(銀오르가노香산암油)는 京都帝大化學研究所內에잇어서 그特許施設의理化學的操作밑에서 嚴密製造되엇고 더욱히同大學附屬病院泌尿科及婦人科를爲始하야 全國著名病醫院에서 臨床的으로使用되어잇으며 그治驗成績이極히優秀한結果를얻게되엇으며同大學醫學部皮膚科泌尿科教室醫學博士片山義郎先生이皮膚科紀要第二十二卷第三號에發表하시사이것을醫學會에報告하엿으니 이것으로도 넉넉히本劑가 그얼마나權威와藥效가偉大한治淋藥인가를아실줄압니다 바로-루의連續服用과自制攝生 이것이야말로 淋疾의最短期療法이라고서 여기에推奬하는바입니다

無代進呈 新刊「淋疾과그療法」四六判七十餘頁 新聞名을明記하야請求하시면 無代로進呈합니다 一名一冊에限하야

全道各地有名藥店에잇음 萬一品切時는直接發賣元에 爲替나振替或은代金引換으로注文하시면密送함 先金의時는送料는不要함

藥價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送料四十五錢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鍛冶町大通(神田驛前) 振替東京一三四〇番・代表電話神田二〇〇番
大阪市東區淡路町(大手橋西詰) 振替大阪七九六九番・電話北濱二三九九番

參列者百名卒倒
炎天下에長時間佇立이原因
魚谷氏葬儀式의不祥事

[illegible] 서 [illegible] 어곡군조(魚谷門)자의식을 [illegible] 시부터 광수보수앙소학교 교정에서 부내각남녀중등학교 생도급각남녀단체등 참렬자사천여 명으로 성대한 장의식을 엄숙히거행하엿섯는데 일기가더움에도불구하고 약두시간 동안이나 긴장하야서잇든 관계인지 참렬자중일백십구명이 졸도하야일시 [illegible]

債券詐欺事件 共犯二名逮捕
釜山署繼續活動

【馬山支社】하관(下關)에본사 [illegible] 확대될것갓다고한다

西公園暴行事件
單純한恐喝?
檢局에서繼續調査中

【淸州】지난사월십삼일오후열시경 청주서공원(西公園)에서어 [illegible] 에게 나케하여달라고 사실을 [illegible] 에게기도하고 도라오려고한 청수모관청 관리부인 조씨(趙氏)(假名)를 괴한이나타나 현금십원일어지를 강탈한다음 폭행을하려다 미수에이른 사건이 발생하엿섯는데 당시청주서에서는 청주군사주면사창리(西州面司倉里)송병화(宋秉和)(二)를 검거취조한결과 범행일절을 자백하엿스므로 엄마전 청주검사국으로 송치되엿다함은 누보한바이나 최근들리는바에의하면 범인은 범행일절을 부인하고잇스며 범행당야의 사정이전후가맛지안는관계로 동사건은 전복될 모양으로서 방금대전방면에 조회중이라한다 탐문한바에의하면 범행당야 부인이 어떠한말하지 못할사정이잇섯는데 그것을 범인이 보게된것에 사건은전개되여 부인이전기범인에게 일원여를제공하엿다하며 그후이비밀을 엄수하는동으로 십오원여를부인이 새로제공한것이라하는 소문이 [illegible] 되엿다는바 동사건은 그당시 정경으로보아 단순한 공갈에지나지안는가 추측되는데 청주시내일반(一般)인사는 의외(意外)을 참지못하야무보수로 범인의 변호를담당하엿다하는바 일반은 동사건에대하야 흥미를가지고주목하고잇다

安東縣에서 天然痘發生

【安東】[illegible]

江界英實學校에 五千圓喜捨
柳光立氏夫婦의壯志

【江界】[illegible] 잇는 영실학교(英實學校)를 위하야 금오천원을 [illegible] 하엿다 유광립씨는 소시부터 [illegible] (사진은 유광립씨)

松林第二小學에 千圓喜捨
具乙會氏特志

【[illegible]】[illegible] 잇지 그럽자도 [illegible] 이번일은 아마어느비적(?)[illegible] 못하다고한다

平壤電車、뻐쓰乘車券
僞造犯續續檢擧
取調따라被害額巨大?

【平壤支社】평양부내 선교리 서전경영(西鮮經營)전차와 빼스 승차권(乘車券)을 위조한사실이 발각되여 검속자와 자살자까지 생긴사건이 발생되여 소관대동서(大同署)에서도 다른방면에범인이언나하여 엄탐중 부내 [illegible]리 전리석(田利錫) [illegible]리 정영식(金 [illegible]) [illegible] 경창리(景昌里)오병규(吳[illegible])등삼인이 공모하고 석판(石版)을 리용하여 부전시대(府電時代)부터 다수의 승차권을 위조한것이 판명되여검거되엿다 취조의 결과를따라다른방면에도 범죄사실이 만흘것이 틀림업스므로 계속하야 맹수사중이다

第二小學基本으로 河川敷地占有運動
新安州住民들또陳情

【新安州】평남 신안주(新安州) 지방은 제반교통도 편리한상공도시다그러나 교육기관만은 대단히 불충분하여 매년입학난으로신음하고잇는 아동들을보면좀더입학난을 완화할방도가업서서는 아니되겟다고 일반의 여론이높다 현재초등교로서는 매년 이학급식 증설하기로 되여잇는 팔학급제의 일개소소학교에 지내지못할뿐이므로 지방에서 년년이증가되는 학령아동들을 수용할도리가 만무하여 부득이기차로 또는 도보로 육키로나되는 안주각학교에 통학하는아동수가 이백여명에달한다 이와가티 입학난을느끼고잇슴으로 지방유지들은 학교후원회(後援會)를 조직하야가지고 학급증설에 활동하는일방 제이소학교(第二小學校)를 세우랴는목적으로 그에 재원(財源)을엇고저하야 작년팔월에 신안주청천강하류(新安州 淸川江下流) 락만리하천부지(樂萬里河川敷地) 면적 이만팔천오백오십평을 당지교유사업에사용하겟다고 학교후원회장안병의(安炳義)씨의 명의로점유허가원을 당국에제출하고 지금까지고대하여오던바 요지음 전하는바에의하면 소유지부근에잇는 신모가 개간목적으로 하천부지점용허가원을 제출하얏다는말을듯고 신안주학교후원회에서는 지난오월이십오일에 토의한결과 재차진정서를 작성하야 총독부와 각관계당국에 지난삼십일일에보내엿다 될수록은 당국에서도 개인의사익을 배제하고국민교육을위하여 우리의 교육비부담 [illegible]

三名은畢竟送局
馬洞煤烟事件의犧牲

【沙里院】사리원 마동매연문제(馬洞煤煙)는 지난오월십구일에 오십여명이 사리원경찰서에 검속된이래 엄중한취조를받든끄테세명만을넘기고 모두석방되는 동시에 오월이십구일에는 위로금(慰勞金)만원으로서 사건이해결되엿다함은 기보하엿고 아울러 사건의해결책을 논의 할때에 부락민대표방치중(方致仲)씨로부터 경찰서에남어잇는 세사람에게 관대히처리하여 달라고 간곡한애원이잇섯거니와 권용호 장봉환(張鳳煥) 김용관(金龍官)은지난일일에 취조가끗나자 검사국으로 넘기엇다 그세명은 모두유십전혼인들로서 사건발생당시 지배인김직공의경상을당할때에 관계하엿다는것으로 검사국의 처분여하는 크게 주목된다고한다

金海 水組事件擴大
書記技手等또檢擧
警察의追窮은漸急

【金海】김해수리조합(金海水利組合)에 미간지와 제방요지에대한부정한행위가 잇슴을 탐지한 김해경찰서에서는 지난이십사일 밤열한시경에 형사대를 동원시켜 동조합평의원 전리사 기수등 수십명을일시검거하고 방금 취조중이라함은 당시 보도한바어니와 그동안 취조에따라 사건이 확대되야 의외관계자들을 속속검거중에잇더니 또무슨새단서를 어든모양이지 지난삼십일에 형사수명이출동하야 동조합장부를 압수하는동시에 리사 서기 기사등수명을 인치하야 방금밤을새우면서 취조중이라는데 이번사실은 자세히 알수는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수년전에 목하(木下)기수가 조합돈유천여원을 소비한사실이잇섯는데 리사와 평의원들이 운동주선하야 버렷다는것과 또소유지매매대금수천원이 장부상에 루락되엿다는것등으로 방금사실조사중에 안중이라고한다

奉天市內에脅迫狀

【奉天】지난이십오일 봉천지내 대동성문리북행호동(大東城門裏北行胡同)의부호고전원(高傳元)방에 협박장이드러왓는데 그내용인즉 이십일 오후여덜시경동천여이층상대합실에서선녀(仙女)담배를피우는 삼십전후의남자에게 일금이만원을가지고와달라는것이다 이것을받은 소관성내(城內)경찰서에서는 당일형사대를잠복시키고 그범인을탐색하엿스나 범인은눈치를채엿음인지 [illegible] 섬이라한다

흥천돈七百圓으로 新京가서留學
故鄕淸津왓다가被捉

【淸津】도적도 가지가지잇건만 절취한돈으로 화자종삼아 유학하고도라온 도적미담(盜賊美談)이잇다——청진부내수정(壽町)에잇는 흑천조(黑川組)에 십장(什長)으로잇든 김하면(金河勉)(三)이란청년은 지금으로부터 일년전에 주인의예금을 은행에서차저가지고 도라오든도중 무슨생각이 떠올낫든지 현금칠백원을 가진대로 만주방면으로 고비원주하고 마랏슴으로 그후청진서에서는 각처에수배하야 수사에 힘썻스나 범인의종적이 묘연하든중 엄마전에 범인이 청진에 나타낫다가 청진서원의손에 붓들니고마럿다 돈이야 손에넘겨왓슬리만무하고 그동안의행동을 심문하니 그는신경(新京)에가서 그곳자동차학교를졸업하고 경진으로 금의환향(錦衣還鄕)? 하야평소의소원인 운전수가되려든것을 악운에빠저 뜻을 못이루고유치장신세를지게되엿다

安東縣市에서 傳染病院新築

【安東】안동시립 전염병원은안동시 탄생과더부러 예산십팔만원으로 국고구만원의 보조를바더 시외도원(桃源)에 설립계획중 예산십팔만원으로는 확장하여가는 안동시의 전염병원으로서는 설비기타에 부족한것을생각하고 다시 유만원을 추가하야 결국 이십사만원으로 삼개년계속공사로 결정하기로되엿는데 제일기공사는 장마가끗나면 곳 착수할것이며 병실수는 오십이라한다

憶昔豪農當年은 手兵六百名을私屯
駿馬産地로有名한大島嶼를私有
而今도鹿茸牧畜이큰生計

〃노비나〃촌오늘의 생활은 풍성스럽한것은 아니라 하드라도 그다지 부족을 모르는편이지만 이것은 보는눈에 따르는 관찰이고 그주인공〃양꼽스키-〃씨에게는 전반생에 잇서서는 상상도못할 궁색한 삶린사리일뿐외라 하로이틀 한달두달 한해두해 십년오십년의 세월을 겪고나서 실륙년이라는 기나긴세월을 두고 눈물과 한숨으로 뼈절니는 망명생활을 게속해왓고 아프로도 어제나 이살님이 쫄날것인지 화연한 목표도 서지안는가운데 암담한 그날그날을 보내고잇스니 제정로서아(帝政露西亞)지방의 호농(豪農)이요 서백리아(西伯利亞)제일의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수병(手兵)유백명을 거느리고 동으로 빠처오는 적군(赤軍)을 몃번이나 물니치고 해삼위(海蔘威)를 탈취하든 당대의 패남아가〃노비나〃의 주인공이될줄이야 겨레사람인들 꿈이나 꾸엇스랴?

이제씨와 및 그마을〃노비나〃촌의 금석담(今昔譚)을 적어보기로하자

×

〃양꼽스키-〃씨가 망명하기전에 살든곳은 연해주(沿海州)의 조그만한 반도(半島)로 해삼위에서 남으로이백이십리 『포셋트』에서 북으로 구십리되는 지점인데 그곳을 불너 『양꼽스키-』섬(島)이라하얏다

이섬은 씨의부친이 당시로령(露領)이든『폴랜드』에서 원대한 포부를품고 극동경략(極東經略)의 선구가 되야 기원일천팔백칠십사년에 『서백리아』를거처 이곳에 자리잡든곳인데 사방팔십리의 이섬은 전부가 씨의소유엿섯고 이때에생업은 금광(金鑛)과 목축(牧畜)이 주가되고 수렵과농사가 부업이다특히 목장은 서백리아 제일을자랑하는 큰규모엿스니 사슴(鹿)만 삼천마리에 달하얏고 로서아제일가는 말을생산한곳도 이곳이다

×

엄친구백년에는 『양꼽스키-』섬을 지키기위하야 자위단(自衛團)을 조직하야 수병 백명을 가지고 섬의재산과 산업을 보호시켯고 다시 규모가 커감에 따라 수병을 육백명까지 증원시켜 처음에는 마적(馬賊)과싸웟고 나중에는 북청사변(北淸事變) 일로전쟁(日露戰爭)에 사병을 의용군(義勇軍)으로 개편하야 씨 스스로 진두에 나어가 무훈을 세워 보기도 햇고 목장에서 기른 말가운데서 우수한것을골너 황실(皇室)에보내엿고 이어서 록용(鹿茸) 모피(毛皮)곤충(昆蟲)을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에 보내준도잇서 씨의 명성이올나감에따라 당시의황제 『니코라이·이세(二世)』의 환심을 산적이 한두번안이엿다고한다 황실에서는 씨의공적을 표상하야 가지가지훈장(勳章)과 귀중한 기념하사품(紀念下賜品)을 만히 씨에게 보냇섯다

×

이목장에서 주산물이되든말과 록용 가운데 말은 구미각국으로 만히 팔니고 록용은 주로 지나(支那)로 수출되든것인데 망명후에 『노비나』촌에와서도 록용만은 역시변함업시 귀중한특산품이되고잇다

지금기르고잇는 사슴은 수무머리가량된다 매년초여름에 한차레식 용을 베여내서는 희망자에게 분매도하고 도매도한다 용에대한 성가는 매우중용하다는데 용한장에 큰것은 사백원으로부터 적은것은 백여원짜리 까지잇서 평균이백사오십원가량에 방매하는데 이때가되면 원근각처에서 보신객들이 아플다투어 차저와 흔은 용을사가고 흔은 용베여내이는때에사슴머리에서흘너나오는 피를사먹느라고 매우 수선을 피우는데 피한번 빠라먹는데만 이십원을 주어야한다

누구나 오래살고 항상젊은대로 청춘을구하고시픈것은 당연한일에 가까우나 이철의 『노비나』탐방객들을 바라보고는 한층더 청춘이 귀여웁고 젊력이 소중한것을 느껴지게한다

×

『노비나』의일화(逸話)로 가장 빛나는 한마디를드르면 길러낸 말가운데 해삼위로부터 『페트로그라-드』(지금의 『레닝그라-드』)까지 구천(九千)키로(이만이천오백리)의 장거리를 단신으로 달리간 절세의준마(駿馬)가잇섯다

이말은 목장생긴이후 처음보는 대표적우량마로 지목되얏다 씨는 이심세의준마를 자기가차지할수업다하야 제왕께 바친다는중에서 시험삼아 달려보것인데 이말을보려고 서백리아넓은벌판을 달린기수는 이도한열아홉살된 처녀 『구다세와』양이엿다하니 말에 지지안는 무용전(武勇傳)에 오를 사실이다。

『구』양이 말에올라 서쪽으로 서쪽으로 지평선(地平線)만응바라보며 한거름두거름 주려가기를 무려 여덜달만에 『유-라시아』대륙(大陸)의 두편극단을일직선으로 그려노코마랏스니 세기(世紀)에 가장 큰〃뉴-쓰〃가 안일수업섯다 그러나 애석한일은 세상에드물지 안흐니 이준마며젊은아가씨의 이름이 세상을 떠들석하게만들 기회는마침내 차저오지못하고마랏다

그리유는 이말이수부(首府)를 차저 세기의다름질을 하고잇는 중도에 놀나운세계대전(世界大戰)은 폭발되고마랏스니〃구〃양이개선한 찰나에는〃페트로그라-드〃부는 눈코뜰사이가업시혼잡을 이루엇고 전국중의말은모다징발(徵發)되고잇든 순간이엿슴으로〃구〃양이애마(愛馬)를제실에 전달하자 그대로말은전선(戰線)에내세우게되고 그후소식은 알연한가운데 사라지고마랏다 지금도〃양꼽스키-〃씨는동을이루고 이름을내지못한말의공적을 추모하고오직〃일밤〃안에 부처진 말의사진만을 바라보며 감개무량한때가만타한다(계속)

(사진은 사슴목장의광경)

咸北特派員吳快一記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作 金熊超畵 【111】

소굴(七十九)

[illegible] 잡든것인데 삼십명이와서 꺽정이는 화가 낫섯다 해음령패의 문안을 바드며 잘들왓느냐 말한마디를 안코 길막봉이의 발명을 듯기실타고 [illegible]까지 들어주지아니하얏다 이봉학이가 선봉속이와 팜동이를 불러서 분부하야 오사람들에게 즉시 저녁밥을 꿍궤하는데 정상갑이 최관돌이 두사람은 길막봉이와가치 방에서 상바치고 먹게하고 기외의 삼십명은 [illegible]노코멍석잘은 마당에 둘러안처서 바아지로 각기 퍼먹게하얏다 오십명가량 머도록 시켜노흔 밥이라 다들 허리띄를 느처가며 실컷 먹고도 한동이와 소라기에 밥이 만히 남아나갓다 방파 마당의 저녁밥들이 다끗난뒤에 정상갑이가 꺽정이를 향하고 풀어안저서

『저이가튼 변변치 못한것들을 무슨일을 시키실라구 불르섯습니까』

하고 뭇는데 꺽정이는 도무지말이 하기실혀서 서림이를바라보고 턱을한번 주석하야 대신 말하란듯을 보이엿다

『오늘밤은 곤할테니 일직들자구내일 이야기를 들으시우일울편악은 오늘밤에 할작정이엇는데 여러분이 늣도록 아니오는까닭에 할수업시 내일밤으로 기일을물렷소』

서림이의 말끄테 정상갑이가 서림이를보고

『하루전기해서 말슴 하시기루 허떳습니까 저이가 달은데누설헐까봐 말슴안하십니까』

하고 물엇다

『그런건아니요』

『그러면 지금 말슴해 주십시요』

『무슨일인지 몰라서 궁금하겟지만 궁금한것두 한 재미루 알구 더좀 참엇다가 내일대장께 말슴을 드룹구려』

『대장아페서 말슴하시면 대장께서 말슴하시나 달을엇지안습니까』

『정이 그러케 듯고자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리다』

[illegible] 니끼』

『일이 좋어렵지 하지만』

하고 서럽어가 정상갑이의말을 꺽그라고 다시 말을 넬즈음에

『되구안되구 내가 하기루 결심한일이야 만소리해 소용업서』

호령끼엇는 팔이 꺽정이 엽에서 떨어저나와다 정상갑이가 서울안에 붓잡힌리가는 것보다 꺽정이의 비위를 거스르는것이 당장 더 무서운일인줄을 생각못하고

『뭔말슴더할것업시 저이는 못하겟습니다』

하고 불패스럽게 말하얏다 꺽정이가 정상갑이 아프로 벗적 갓가이 나와안젓다

『무어야 한번 다시말해봐』

『저이는 겁이만허서 그런대담스러운일을 못하겟다말슴입니다』

정상갑이의 말이 듯기에 비꼬아 하는말가티 들리엇다 꺽정이의 손끝이 번개가티 아프로 나가며 정상갑이 뺨에서딱 소리가 나고 정상갑이 입에서 아이쿠 소리가 나왓다 꺽정이가 힘것 친것도 아니것만 정상갑이의 한쪽 우아래 어금니가 다빠젓다 정상갑이가 피무든니를 배트면서

『사람을 일부러 오래서 이게 무슨 행악이람』

하고 우는소리로 중얼거렷다

『행악』

하고 뇌며 꺽정이가 뻘떡일어서니

『소인이 저놈대신 빌겟습니다 용서합시요』

하고 최관돌이가 한편 소매에 매어달리고

『형님』

하고 길막봉이가 한편 손목을 잡어달렷다 꺽정이가 최관돌이와 길막봉이를 뿌리치면서 밟킬로 정상갑이를 거더찻다

『행악 오냐 행악한다』

꺽정이가 두서너번 연거퍼 발길질을하얏다 정상갑이는 처번에 나가동그라진채 그대로 사지를 쭉 뻐첫다

豫言

治淋特効劑 G-U-(지유)사이드는 그有効成分이 今世紀最大의發見으로서 實로稀世의名藥인바 特히淋疾이世界的으로蔓延되나 百藥이無効하야 治療할바를 모르는此際에 이藥이 出現하자 果然全世界에 一大쎈세이숀을 惹起하엿습니다。

G-U-(지유)사이드가 發賣된지不過數個月間 服用後數日에 急慢性을不拘하고 根治한분이 激增되어 社會는나날이明朗化하고 G-U-(지유)사이드의 名聲은 漸益高揚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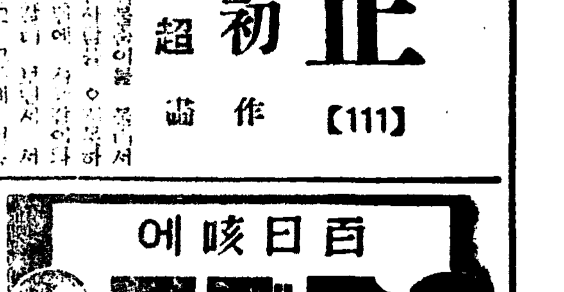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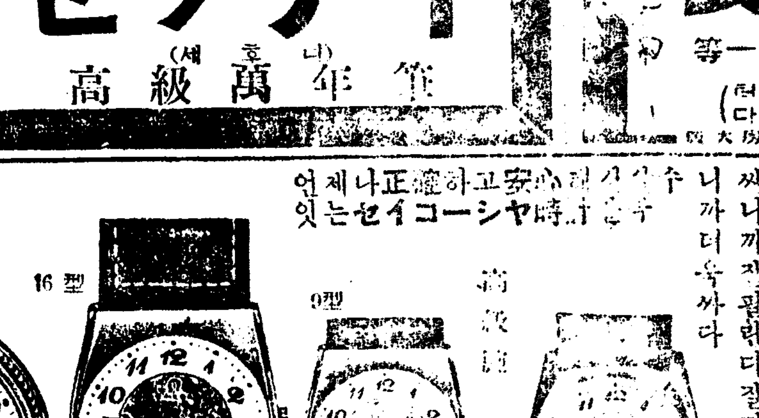
이에豫言합니다。今後G-U-(지유)사이드의 名聲을부러워하고 이것을利用하려는 模倣治淋藥이簇出하야 G-U-(지유)사이드의理論 或은廣告의文案·版形及輪廓 又는包裝의模樣이나 容器等中에서 무엇이든지模倣한것이 반드시잇슬터이오니 諸位는恒常G-U-(지유)사이드에 注意하시어 模倣品에迷惑되심이업기를바라나이다。

性器强大藥
男子性器短小와早漏에 百發百中(淸導補腎丸)
早漏防止
[illegible]
會名社 ユ-ビ-洋行藥品部 振替京城一一三九二番

付ペン金合理特許
セフティ
高級萬年筆(세호나)

百日咳에
コデス
一等効果조코먹기
(定價二十錢早見 藥店에잇슴니다)

大同工業專門學校 生徒募集
一、募集人員 鑛山學科第一學年 約八〇名
二、出願期限 昭和十三年六月十六日迄
三、出願手續 [illegible]
四、試驗科目 國語、解譯、作文)英語、數學(代數幾何三角)化學及身體檢査口頭試問
五、試驗日割 六月十八日ヨリ六月二十二日迄
六、試驗場 平壤府新陽里元崇實專門學校跡
七、願書受付場所 平安南道廳內 本校假事務所

時는金이다 ◎먼저安心 市價三分之一大賣出 注文에際하야
언제나正確하고安心하실수잇는セイコーシャ時計
時間正確 十ヶ年保險付
省線鐵道御用品 クローム側ウオルサム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丁目
セイコウシャ時計部 振替東京八二四五番
[illegible]

誤電一本으로 意外의喜悲劇

二日朝取市場에서狂燥波瀾 關係方面大衝動惹起

[illegible]

通信社陳謝로 今後를團束

取引員組合副委員長 趙俊鎬氏 談

[illegible]

直通電話必要나 費用其他關係로實現難

□ : 橫山朝取支配人 談

[illegible]

影響은重大!

某取引員 談

[illegible]

過失이라지만 기막히는노릇

客側某氏 談

[illegible]

諸材料昂騰으로 工事入札續不成

官廳工事進行上悪影響莫大 根本的對策講究必要

[illegible]

純綿布反動崩落

三A는三百七十圓으로轉落 高價에서三十二圓低

[illegible]

鮮銀總裁北支出張中止

[illegible]

商工會議所 新設北京에設置

[illegible]

上期銀行業績 一般成績良好

[illegible]

軍需下請金融 商銀研究着手

[illegible]

店舖構造와 裝飾講習會

小賣商店의 振興에關하야 就中販賣能率의增進 顧客의吸引策으로서의 店舖構造와 裝飾陳列에就하야 充分한硏究를하고저今回京城府及京城商工會議所 共同主催下에 斯界의權威者인 東京川喜多店舖能率硏究所長 川喜多煉七郞氏를 招聘하야 六月十四日부터 四日間에亘하야 左記에

新知識 戰時下의商品取引所

戰爭이 進行되어감에따라서 統制經濟는 漸次强化해가는데 其戰時下의 統制經濟아래서 全혀 存在의 意義를減殺하여 버리는것은 取引所이다 其中에서도 商品의 取引所가 가장조흔例로 歐洲大戰當時 交戰諸國에서는 商品의 取引所 特히 穀物取引所를 一時閉鎖하여버린곳이만라。 統制經濟는 商品의 價格과 配給의方面을 國家의權力으로 一方的으로 決定하여버리므로 其商品을 對象으로하는 投機行爲와「오모와꾸」의 길이 杜塞되고 投機와「오모와꾸」가 中心이 되어잇는 商品의 淸算取引은 이것을行할餘地가 업게된다

◇

政府는 先年米穀統制法을 施行하야 每年十二月에 米穀의 最高價格과 最低價格을公定하고 米價가最高價格을上廻하면 政府米를 賣出하고 最低價格以下로 低落되면이것을 買入하야 米價의 維持에 努力하고 잇스므로 米의 商品取引은 全혀 이最高, 最低價格의 幅가운데 限定된 以來 米穀取引所의 取引高가 激減하고 잇는것은 周知하는바이다

◇

今回綿絲販賣價格取締規則의 公布와同時에 지금까지 四個月分식 定하고잇던 綿絲最高價格을 七個月分까지 公定하게되엿스므로 綿絲取引所는 거의其機能을喪失하게 되엿다 이미昨年十一月에綿絲最高標準價格制가 實施되여四個月限까지의 最高價格이公定되여잇슬때에도 綿絲讀買取引은 每月減少의一途를밟고잇는것으로 例를들면 今年四月의 東京米商取引所의 綿絲取引高는 前年同月의一割五分가량으로되여버렷스므로 今後는 閉店休業과갓게될것이다

◇

商工當局에서는 如何한商品取引所의機能喪失도 戰時經濟體制下에서는 不得已하다고하고잇서 今後다른商品取引所에서도 同樣의運命을 밟을것이적지안흐리라고 觀測된다 그때문에 取引所의 新設이던가 新商品의追加上場이던가의申請도 今後一切 認可치안흘모양이다。

上海와取引

總領事館에서許可

[illegible]

本邦船貨物·旅客積卸 維新政府에서關稅徵收

[illegible]

經濟界消息

[illegible]

北支麥酒飢饉

[illegible]

朝鮮의配船에 一層努力!

◇ : 內田商船專務 談

[illegible]

市場六感

[illegible]

株式 反弛裡鈍狀

今日의市勢(三日)

前場反弛

[illegible]

後場保合

[illegible]

期米 堅强이나伸悩

國債軟調

[illegible]

前場伸悩

[illegible]

刺戟的動機待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今日財界三日

[illegible]

意外波瀾

鐘紡增資問題로

[illegible]

後場細刻

[illegible]

反撥後伸悩!

[illegible]

移秧期에直面 産地大體樂觀

[illegible]

正米 定期高로反騰

京城高唱

[illegible]

仁川少高

[illegible]

釜山反撥

[illegible]

大邱少堅

[illegible]

群山續騰

[illegible]

木浦昂進

[illegible]

謹告

現代社會의 構成에 잇서서 本社의 通信事業이 가장重大한 役割을하게됨은 말할것도업습니다 그런데 昨二日 後場의 大阪短期鐘紡大引貳百五十二圓九十錢을 貳百五十九圓貳拾錢으로 誤報하엿기때문에 朝鮮取引所及同組合並一般顧客에 對하야 不忘의 迷惑을끼치게된것은 眞實로무어라 陳謝의 말을드려야 조흘지모르겟나이다 그런데 本件事情을調査한結果 釜山—京城間의 通信의錯誤이엿슴이 判明되엿사와 當面의 電信關係者二名을 免職하고 今後如斯한 過誤가업도록 社內의 連絡機構人事等을 改善하야써 通信의 正確을 期코저 努力하겟나이다 玆에 遺憾의 誠意로써 陳謝의意를 謹表하는바입니다

昭和十三年六月三日

日本商業通信社京城支社

海外經濟

銀行券 [illegible]

鰯油粕·麥粉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朝取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主要取組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京城物價(三日)

[illegible]

砂糖 [illegible]

生糸 [illegible]

人絹 [illegible]

綿花 [illegible]

綿糸 [illegible]

川仁部米期·部券證 京城 吉村取引店

朝 盃 取 金盃證券

米 東 期 趙俊鎬取引店

東亞證券